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53호

Wednesday, June 26, 2024 A

한인 살인 미제, 32년만에 용의자 찾았다

고보임씨 피살 사건 미스터리

가디나 체크캐싱 업주 고씨
현금 인출 후 실종·피살돼
현장 채취 지문 재검색으로
원동호씨 특정했지만 사망



피살된 고보임씨



용의자 원동호



1992년 3월 30일자 LA중앙일보 1면, 고씨 피살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중앙포토]

1992년 3월 남가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보임(당시 57세)씨 피살 사건이 32년 만에 돌파구를 찾았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청(SDCDA)은 최근 지문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검색한 결과 유력 용의자로 한인 남성 원동호씨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32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진범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3월 26일 가디나 지역에서 노점 가게와 체크 캐싱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던 고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세리토스 지역 아테시아 불러바드 선상 파스트 글로벌 뱅크에서 현금을 찾아나선 뒤 그녀가 몰던 1978년형

올스모빌 차량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실종 이틀만인 28일 고씨는 가디나에서 120마일가량 떨어진 샌디에이고 쇼핑몰 주차장에 주차된 올스모빌 차량 안에서 머리에 3발의 총격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손발이 묶여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상반신은 조수석 시트에 기대고 머리는 조수석 아래쪽으로 숙인 상태였다. 시신 위는 한인 신문으로 덮여있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은 당시 LA와 샌디에이고 한인사회와 더불어 주류사회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유가족들은 당시로서는 거액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서 하나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후 세간에 잊혀졌던 사건은 최근 과학수사기법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고씨 시신이 발견된 차량 안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로 원씨를 찾아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25구경 탄환은 당시 원씨가 소지하고 있던 '선댄스 A-25' 소형 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인 점도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학수사기법으로 32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원씨가 2003년 미시간주에서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씨의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근거중 하나로 당시 사건 동기가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공개했다.

샌디에이고=서정원 기자, LA=장수아 기자
▶ 4면 '미제'로 계속 ▶ 관계기사 4면

양녀 성폭행 한인 미국으로 송환

시민권자...2013년 한국 도주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24일(한국시간) 법무부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메릴랜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한인(50대) 시민권자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의해 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인 A씨는 미국에서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A씨 도피가 장기화되자 지난 2022년 1월 범죄사실을 근거로 A씨 여권을 직권취소했다.

김형재 기자
▶ 4면 '미국 송환'으로 이어집니다

안전기준 없는 리튬, 이틀 전에도 터졌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인재(人災)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틀 전 불량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체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포장작업을 계속했고, 과거 여러 차례 리튬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재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이민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리튬전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는 물론 모바일·전기차 시대에 없어서 안 될 '하얀 석유'로 불린다.

하지만 화재 참사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안전 취약국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으로 유명하지만 오랫동안 화재 등 인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썼을 정도다.

25일 경찰·소방 당국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소방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예방법상 연면적 3만㎡ 이상 공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나 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5530㎡여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 유도 등의 이상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만 보고하면 됐다. 업체는 지난 4월 자체 소방시설 점검 뒤 “양호하다”고 당국에 통보했다.

아리셀은 참사 이틀 전에도 리튬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공장 2동 1층에서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던 중 온도가 급상승하며 불이 났다.

이보람·손성배·이영근 기자
▶ 13면 '화성 참사'로 이어집니다



제74주년 6·25전쟁... DC 기념식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에서 제74주년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엄수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관계기사 3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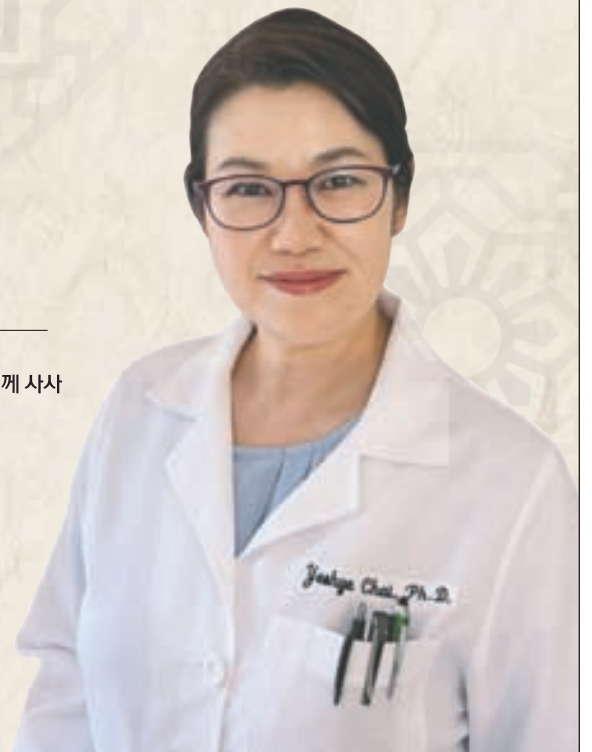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100m 태극기 게양대' 추진 논란

오세훈 "6·25 참전용사 희생 추모" 일부 시민단체 "시대 흐름에 역행"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이 계획을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 등에서 헌신한 참전용사 7명을 초정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했다. 오시장은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국가상징공간의 첫 국가상징 조형물로는 태극기를 선정했다. 태극기는 3·1운동과 서울 수복, 19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를 함께한 상징이다. 서울시는 단순한 국기 게양대가 아닌 예술성과 첨단기술력을 집약한 작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 행사 때는 먼 거리에서도 위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빛기둥과 미디어 파사드(15m 내외)·미디어 플로어 등으로 연출한다. 대형 조형물 앞에는 두 번째 상징물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한다. 기억·추모를 상징하는 불을 활용해 일상에서 호국 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이다. 국기 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 예산은 총 110억원이다. 국가상징공간 부지 옆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 공원도 30여 년 만에 시민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은 2026년 2월, 세종로 공원은 2026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설치에는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시민위원회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지난달 시의회에서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허용 조례가 통과되자 문화연대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 조감도. [사진 서울시 문화청 기자]

북·러 밀착 행보에, 바이든 행정부 '한국 핵무장론' 첫 언급

캠벨 "역내 국가 안보지형 달라져" 북·러·러시아발 핵위협 증가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 시작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협력 조약 체결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포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기존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하고 있다"는 후커 전 보좌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



'2024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연합유류고를 운용하며 드림통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 합참]



2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모습. 북한군이 최근 세운 철책 구조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책을 담당했던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시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워싱턴선언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강력

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지금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이든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가 기존 정책의 고수를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명한 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논의에 대한 워싱턴 안팎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은 뒤 추진해 왔던 미국의 핵 감축 전략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캠벨 부장관은 이러한 기류와 관련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쌍방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한 게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캠벨 부장관은 특히 "중국은 (북·러 협력)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도발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전개"라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을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해 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왔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워싱턴=강태하 특파원

북·러 조약 놓고 한·러 외교관 설전... "안보리 결의 위반" "한국이 받아들여야"

정병원 외교 차관보-러 외무차관이란서 열린 ACD 회의에서 조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도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최근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는 자국 매체를 통해 "한국이 북·러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병원 차관보는 전날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과 조우했다. 지난 19일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외교부 1차관의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 외에 한·러 고위 당국자가 별도로 조우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양측이 만난 시간은 아주 잠시였다고 한다.

정 차관보는 이날 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북·러 조약 체결 등 북한의 군사적 능력

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적 행위도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ACD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국제 안보와 평화에 위해가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차관보는 또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상황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루덴코 차관은 정 차관보의 발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그는

자국 매체인 스포트니크 통신을 통해 25일 "한국이 북·러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국이 새 협의를 이해심을 갖고 수용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해 건설한 접근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군사 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약까지 마련해 놓고 한국을 향해선 "이해심을 가지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한·러는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서로를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양국 차관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면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러시아가 뒤로 자국 매체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대결 국면'을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분위기도 띄우고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이날 스포트니크 인터뷰에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을 때 (김정은의 방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워싱턴 날씨 (°F)

27일(목)	91-71	30일(일)	88-69
28일(금)	87-74	1일(월)	82-68
29일(토)	92-79	2일(화)	84-74

6월 26일(수) 95~7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6·25전쟁 발발 74주년 기념식 성황 “한국의 기적, 참전 용사 희생이 일궈냈다”

제74주년 6·25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거행됐다. 워싱턴 지역에 수일째 지속됐던 폭염이 한 풀 꺾인 이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양국 6·25 전쟁 참전용사 및 유가족, 향군단체 회원, UN참전국 대표 및 한미 주요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의 풍전등화에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놀라워 하며, 참전 유공자들은 이를 가능케 한 영웅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하루 빨리 자유를 찾아 남북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하길 빈다는 바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헌화와 참배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해 감사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9명의 참전용사 및 유족에게 전달했다. 조 대사는 “참전 유공자들의 업적으로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25일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양국 참전 유공자, 주미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현동 대사가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에서 헌화와 참배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해 감사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9명의 참전용

사 및 유족에게 전달했다. 조 대사는 “참전 유공자들의 업적으로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폭염으로 냉방시설 고장 줄이어

고장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아 2시간 지나면 실내외 온도 비슷해져

연일 폭염으로 냉방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워싱턴지역의 주택용 냉난방장치인 HVAC 시스템의 경우 연식이 오래될 경우 열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더위에 제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HVAC 시스템이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게을리한 경우 쉬지 않고 가동되면 과부하로 인해 냉방이 중단될 수 있다. 메인터너스가 불량일 경우 가동시간이 길어지면 냉매 유출로 인한 효율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컨텐서와 증발기 코일과 응축기 코일은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점검

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 외부의 컨텐서 코일 등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장의 원인이 된다. 3-6개월 간격의 필터 교체 시기를 놓칠 경우 냉방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각 지역정부는 HVAC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더운 실내에서 지체하지 말고 근처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다. 냉방이 안되는 주택의 경우 냉방장치 가동 중단 이후 2시간이 지나면 바깥 온도와 비슷해지며 온실효과로 인해 나중에는 바깥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 노약자와 심폐기능이 약할 경우 이정도 시간으로도 일상병 등을 겪을 수 있다.

최근 HVAC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동안 집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



김욱재 기자

MD 의료기기 무료제공 프로그램 인기

중고 기증받아 무료 배포

특수 의료 장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를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Durable Medical Equipment Reuse program·사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릴랜드 노인국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지팡이, 목발과 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침대와 전동휠체어, 스키퍼, 호이어 리프트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도 무상 지급도 포함돼 있다.

매릴랜드 주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해당 웹사이트(aging.maryland.gov/pages/DME)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의료기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기는 지팡이, 목발, 워커, 롤레이터, 샤워 체어, 터보 트랜스퍼 벤치, 침대 및 화장실 안전 레일 등 기본물품과 각종 휠체어와 가정용



전동 침대, 기계 리프트 장비 특수 물품으로 나뉜다.

일부 특수 의료장비의 경우 주치의 등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의료용품은 전문회사로부터 기증받거나, 일반 주민들이 쓰던 중고 제품이다.

당국에서는 기증받은 모든 물품에 대해 개별적인 안전 및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세척과 적외선 살균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

1500만명 영향, 빠르면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P)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FPB는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CBPP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원달러 환율 1400원 위협... 고환율 고착 우려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24일(한국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0.7원 떨어진 1389원에 장을 마쳤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최근 들어 더 가파르다. 지난달 한때 1340원대까지 올라갔던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약 한 달 사이 40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원화 약세의 결정적 배경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기 금리 인하 분위기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최근 유로존과 스위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8월 인하가 유력하다. 조기 금리 인하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달러 강세는 비미국 국가들의 기초

경제 체력의 차이가 반영된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과 중국 등 미국 외 주요 경제 대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미국과 차이가 벌어지자 이런 격차가 환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나 홀로 독주가 지금까지처럼 굳어지면 과거보다 높은 달러 가치를 ‘누노멀(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남준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용이하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거액 인출 후 실종... 이틀만에 변사체로 발견

①1992. 3. 26 그날의 기록들
머리와 목에 3발의 총격 자국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서 발견
당시엔 이전 강도범 소행 추정

1992년 3월 26일, 고보임(당시 57세)씨의 행동반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가디나에서 '도넛&델리'와 함께 체크캐싱 비즈니스도 운영하던 고씨는 고객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목, 금요일 은행을 방문하곤 했다. 한번 인출할 때마다 보통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였다.

그날도 고씨는 그가 살던 세리토스 지역의 퍼스트 글로벌 은행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하지만 돈을 차량에 싣고 떠난 것을 끝으로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당시 고씨와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은 고씨가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3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고씨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120마일이나 떨어진 샌디에이고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

고씨의 차량(78년형 올스모빌 98)은



1 샌디에이고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견된 숨진 고보임씨의 시신은 신문지에 덮여 조수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2 고보임씨가 세리토스 지역 은행에서 4만 달러를 인출해 나오는 장면.



3 고보임씨가 세리토스 지역 [샌디에이고카운티 경찰청]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플라자 몰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고씨는 이 차 안에서 머리와 목에 3발의 총격 자국과 함께 신문지에 싸여 조수석 밑에 처참히 놓여 있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주차장에 이틀간 계속 주차해 있는 차를 수상히 여긴 쇼핑몰 내 한 세탁소 종업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 차량이 수배된 차량이었으며 숨진 여성이 고씨인 것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과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강도에 의한 납치 사건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 8개월전인 1991년 7월 고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히스패닉 강도 3인조가 침입해 종업원 2명과 손님 4명을 인질로 삼았다. 당시 이들은 1시간 30분을 기다려 체크캐싱자금을 인출해오는 고씨를 위협해 10만 달러를 강탈했다.

당시 경찰은 “그때 고씨의 가방 안에 은행 통장도 함께 있어 거래 은행을 알고 있었고 또한 고씨의 차량도 알고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당시 시신이 샌디에이고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용의자들이 멕시코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 역시 이를 강도 사건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본지와 인터뷰에

서 “가게를 턴 그놈들의 범행”이라며 진작 가게를 옮겨야 했다고 애통해하기도 했다.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고씨를 평소 인정이 많고 온화한 성격으로 소개했다. 또한 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업후원금으로 매달 100달러씩 보내온 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을 얻지 못했다.

범인들이 다른 주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은 주요 방송사와 함께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하고 방영하기도 했지만, 용의자에 대한 단서 하나를 더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고씨 사건은 시간과 함께 묻히는 듯했다.

이번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청(SDCDA)의 새로운 용의자 원동호씨의 지목으로 고씨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살해 용의자가 히스패닉 강도 일당이 아닌 한인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는 점 등 당초 예상했던 사건의 성격과는 극명히 달라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다. 정수아 기자

▶1면 '미제'에서 이어집니다.

사건 당시에는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히스패닉 강도 3인조가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샌디에이고경찰청은 경찰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고씨의 몸(양말 안 9815달러)과 차량 트렁크와 지갑에 있던 4만1519달러까지 현금 총 5만1334달러가 차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새로 취합된 단서들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숨진 고씨와 용의자 원씨간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당시 고씨 주변의 인물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면 '미국 송환'에서 이어집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여권이 취소되자 A씨를 지난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강제퇴거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 법원은 A씨 소송을 기각했고, 법무부는 미국대사관 측과 송환일정을 협의해 지난 20일 그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김형재 기자

주문 안 한 물건이 배달... '브러싱 스캠' 주의보

무작위로 수집한 주소로 발송
가짜 리뷰·판매실적 조작 수법
FTC,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

전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는 등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CBS 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의 한 여성은 아마존으로부터 풍선이 가득 담긴 소포를 받았다. 일리노이주 가족 집 현관 앞에는 중국 소유 초저가 온라인 쇼핑플랫폼 테무에서 보낸 군용 모자와 카메라 포함 수십 개의 박스가 배달됐다. 또 매사추세츠 한 부부는 셀폰 충전기, 가습기,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있는 아마존 박스를 받았다. 이들 모두 해당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업체들이 무작위로 수집한 주소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발송한 뒤 판매 실적을 조작하는 신종 수법이다.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에서 사례가 보고되다가 2020년 팬데믹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워싱턴, 조지아, 캔자스,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주 등에서 중국발 정체불명 싸앗이 배달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한동안 잠잠하다 올해 초 남가주에서 아마존, 테무, 이베이 등의 업체로부터 주문 안 한 소포가 보고된 이후 전국적으로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주문한 적이 없는 제품을 온라인 배송으로 받았다면 브러싱 스캠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일부 온라인 소매업체 제3자 판매자

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브러싱 스캠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제3자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 온라인 플랫폼 리뷰에 구매자로 표시되므로 리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리뷰와 판매량이 많을수록 판매자 등급이 올라가고 검색 순위가 상위에 오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짜 리뷰를 확인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C는 “일부 판매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배송하고 거짓 리뷰를 작성한다”며 “주소와 연결된 다른 이름으로 많은



새 계정을 만들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를 위한 비영리단체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브러싱 스캠 피해를 본 경우 ▶소매업체 연락해 사기 구매 조사 요청 ▶판매자에게 가짜 리뷰 삭제 요청▶온라인 전자상거래 계정 최근 주문 확인 ▶온라인 소매업체 비밀번호 변경 요청 ▶크레딧 리포트 및 크레딧카드 명세서 모니터링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70대 남성 총기 극단선택 타운 골목서 숨진 채 발견

70대 남성이 LA한인타운 골목에서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LA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2

일 한인 추정 남성 지미 김(72)씨가 1가와 사우스 맨해튼 플레이스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스스로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골목에 정차된 차량

안이 아닌 골목길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LA경찰국(LAPD) 측은 오후 1시 44분쯤 총성 신고를 받고 LAPD 경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김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전했다.

검시국 측은 현장에 도착해 오후 1시 55분쯤 김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검시국 측은 김씨의 사망을 자살로 규정하고 사인은 가슴을 관통한 총상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미국 기업 해외 수익 과세 합헌”

의무 송환세 유지 결정 부유세 도입 판단 안해

연방 대법원은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7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연방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

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 세금도 마찬가지”라며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이슈도 있으나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거나 해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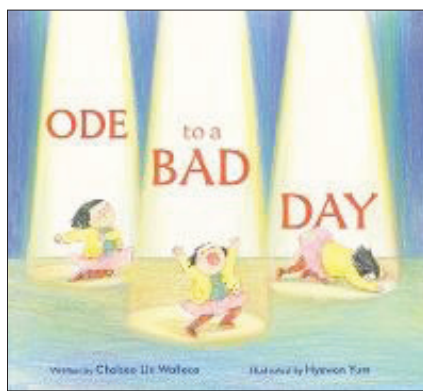
그림책 작가 염혜원, 보스턴글로브 훈복상 수상

그림책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염혜원 작가가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보스턴글로브 훈복 어워드’를 수상했다.

25일 보스턴글로브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염 작가는 그림책 ‘말소사, 나의 나쁜 하루’로 찰스 린 윌리스와 함께 그림책 부문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윌리스 작가는 이 책의 글을, 염 작가는 그림을 각각 맡았다.

1967년 제정된 보스턴글로브 훈복 어워드는 ‘훈복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주관해 소설과 시, 논픽션, 그림책 등 세 부문에서 각각의 수상자(Winner)



‘말소사, 나의 나쁜 하루’ 책표지

과 명예상(Honor)을 선정하며,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상

이다.

한국 작가로는 이수지 작가가 지난 2013년에 수상한 데 이어 ‘구름빵’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 백희나 작가가 지난 2022년 상을 받은 바 있다.

염 작가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판화를 공부했다. 이후 뉴욕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으며, 현재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볼로냐 라가치 픽션 우수상, 에스라 잭 키츠 상, 샬롯 졸로토 상 등 아동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권이 있는 상을 여럿 수상한 바 있다.

워싱턴 특파원 칼럼

대선 어지럽히는 ‘값싼 가짜’

만 82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우려를 부추기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의 공격이 위협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지만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조작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릴 뿐이다.

보수 성향 매체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행사 때 자리를 이탈하며 마치 정신줄을 놓은 듯한 모습의 사진을 ‘방황하는 지도자’라는 제목과 함께 1면에 실었다.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세로 영상도 인터넷에 유포됐다. 영상은 삼시간에 퍼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공격에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NBC 방송의 팩트체크가 ‘숨어 있던 1인칭’을 찾아냈다. NBC가 공개한 더 넓은 각도의 화면에는 바이든이 막 차지에 성공한 나하산 부대원들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를 건네려 한 모습이 담겼다.

앞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바이든이 의자가 보이지 않는 데도 앉으려는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의 12초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투명 의자에 앉고 있다”고 놀리었다. 하지만 AP통신의 팩트체크 결과는 “거짓”이다. 더 넓은 각도의 훗살을 보면 바이든이 뒤에 있는 의자를 살피고 잠시 후 의자에 앉는 장면이 나온다.



김형구 워싱턴총국장

언론은 AI를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Deep Fake)와 달리 손쉽게 저렴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상을 왜곡시킨다는 뜻에서 ‘값싼 가짜(Cheap Fake)’라 부르며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는 우려다.

백악관도 “교묘하게 편집된 악의적 영상”이라고 반발한다. 선을 넘은 마타도어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소통 부족이 고령 리스크를 키운 측면은 없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도 있다. 임기 내내 주류 언론과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조차 진보 성향 뉴욕타임스(NYT)를 방문해 인터뷰를 했지만 바이든은 NYT 인터뷰를 계속 피하고 있다. 최고의 홍보 기회라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관련 인터뷰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거부한 것도 말할 수 때문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오는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열린다. 발언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막강 예방 규칙들이 동원됐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 정책·비전 제시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

100세에도 풀타임 일하는 할머니 화제

뉴저지주 미리암 토드 여사

뉴저지주의 한 할머니가 100세의 나이에도 주당 50시간 이상의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어 건강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리암 토드(100·사진)는 요즘도 뉴저지 스타레프트드의 가구점에 주6일

출근하고 50시간 이상 경리와 총무일을 본다. 이 가구점은 토드의 부모가 지난 1929년 창업했다.

1924년 6월11일 태어난 토드는 부모로부터 가구점을 물려받아 아들, 손자와 함께 경영하고 있으며 은퇴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이 1991년 사망한 후에는 가구점에서 일



하는 시간이 더욱 늘었다. 그의 어머니도 80세가 넘어서도 가구점에서 일했는데, 사무실 책상에 앉은 채로 사망했다.

토드는 차량을 운전하고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로서리 쇼핑도 스스로 해결한다. 그는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게 없는 걸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토드는 정

기적으로 노인성 황반변성(AMD)질환으로 안과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것을 제외하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의사를 만난 적도 없다.

전문가들은 토드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장수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토드는 술과 담배, 마약을 전혀 하지 않으며 튀김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또한 토드의 식탁에는 항상 갖가지 색깔 채소와 과일이 놓여

있다. 유일한 음식 사치는 다크 초코렛을 즐기는 것이다.

그는 되도록 텃밭에서 직접 기른 토마토, 고추, 오이, 옐로 스위트, 주치니 등으로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토드의 으뜸 장수요인은 무엇보다도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배제하기 위해 크레딧카드를 만들지 않는 등, 분수에 맞는 생활도 장수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옥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결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락초)점
웨이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초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트럼프, 국방부 전기 군용차 반대

“바이든 적국 환경까지 챙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을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방부의 군용차 전동화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와 인터뷰에서 전기로 가는 탱크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전투기가 미군의 전투력을 약화하고 장병들을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국방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전략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들은 육군 탱크를 전부 전동화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불을 뿜으며 진격할 때 그 나라의 환경과 공기를 좋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도대체 제정신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포क्स뉴스 인터뷰에서는 전기 탱크에 필요한 배터리가 너무 커서 탱크가 배터리 운반용 트레일러를 뒤에 끌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서는 군이 적국 하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



2019년 미국의 탱크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AFP 연합뉴스]

장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전투기가 녹색 에너지 절약 인증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15%나 떨어지지만 우리가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맹렬하고 인정사정없이 공격하는 동안 적의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미 육군의 기후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전략에는 2035년까지 모든 비(非)전투 차량을 전기차로, 2050년까지 전투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육군은 그런 결정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적과 싸워 이긴다는 육군의 핵심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군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왔으며 임무 수행에 차질

이 생기지 않는 한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나,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탱크는 디젤 연료를 소비하지 않고도 탱크의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해 기존 탱크 대비 연료 사용을 20% 줄일 수 있다. 연료 사용을 줄이면 전방에 연료를 계속 보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군이 개발 중인 전기 정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조용하고 열 감지가 어렵다. 또 미군의 화석연료 소비는 상당 부분 국내 기지와 병력·화물 운송용 차량과 항공기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의 전동화도 전장과 먼 곳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힐러리, 바이든에 토론 훈수 “트럼프 주장 반박은 시간낭비”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하려 하지 말고, 재임 중 실적 등을 강하게 어필하라고 조언했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 대통령과,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각 토론전을 벌였던 클린턴 전 장관은 25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보통의 토론에서 하듯이 트럼프 씨의 주장들에 반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썼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트럼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그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실없는 소리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3월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 때처럼 직접 화법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실적, 근로자 가정 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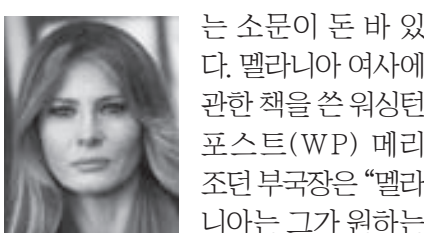
화, 청정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납득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클린턴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은 시청자들에게 ‘허풍’을 꿰뚫어 보고, 위협에 처한 ‘근본적 문제’에 집중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폐지, 불법체류 노동자 수백만 명 추방, 모든 상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등 공약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라고 제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선거는 유죄 판결을 받고 보복에 나서려는 범죄자와 미국인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통령의 대결”이라며 “토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쉬운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은둔의 멜라니아, 백악관 다시 올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더라도 퍼스트레이디 2기를 시작하게 되는 멜라니아(사진) 트럼프 여사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는 24일 “멜라니아 트럼프는 두번째 임기에 워싱턴 DC에 풀타임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나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대체로 워싱턴에서 외출을 피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영부인치고 이례적으로 은둔형이어서 백악관에 사는지, 아니면 교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소수의 ‘멜라니아 전문가’를 인용해 멜라니아 여사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와 뉴욕을 오가면서 국민 만찬이나 특별 이벤트처럼 격식을 갖춰야 하는 행사 때에만 백악관에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약시오스는 분석했다.

앞서 아들 배런이 뉴욕대에 다니다

는 소문이 돈 바 있다. 멜라니아 여사에 관한 책을 쓴 워싱턴 포스트(WP) 메리조던 부국장은 “멜라니아는 그가 원하는 일을 한다. 이 점이 다른 어떤 영부인보다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영부인 관련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케이트 앤더슨 브라우어는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남편과 워싱턴 정계로부터 스스로 더 거리를 두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걸 분명히 싫어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1년 백악관을 떠난 이후 멜라니아 여사를 목격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등’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시오스는 아울러 앞으로 주목할 대목으로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 정치’를 꼽았으며, 자신이 주도한 아동 권리 운동인 ‘비 베스트’(Be Best)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포천지 100대 기업의 트럼프 후원 ‘0’

경제전문지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을 후원한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2년 대선 때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후보와 밋 롬니 후보가 각각 30명 가까운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이 외면한 ‘최악의 보수 후보’이며 그 같은 기록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25일 예일대 경영연구소 원장인 제프리 소넨펠드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100대 기업들의 지원은 말 그대로 전무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에도 100대 기업으로부터 한 건의 후원도 받지 못했다.

2020년 현역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는 100대 기업 중 2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만 지원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 마지막 공화당 현역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출마했던 조지 W. 부시의 경우 2004년 당시 100대 기업 가운데 42개 기업 CEO의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이 외면한 ‘최악의 보수 후보’이며 그 같은 기록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지원은 과대 평가하기 쉬운 부분”이라며 “미국의 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밀착으로 이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주요 기업인의 3분의 2가

량이 등록된 공화당원이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핵심인 극우 ‘마가(MAGA)’ 세력에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매체의 평가다.

소넨펠드 원장은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오늘날 미국의 최고 기업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단지 한 쪽은 참아낼 수 있고, 다른 쪽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기업가들과 달리 미국의 핵심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고 있다고 약시오스는 덧붙였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만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을 후원했으며,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지분을 약 15%가량 보유한 헤지펀드 매니저 제프 야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 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폭염에 링컨 밀랍 조형물 녹아내려

“기후변화 심각성 보여줘”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인해 현지 초등학교에 올해 초 설치된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폭염에 녹아내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형상의 밀랍 조형물 [컬처럴 DC 홈페이지 캡처]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DC 개리슨 초등학교 교정에는 올해 2월 의자에 걸터앉은 링컨의 모습을 묘사한 높이 6피트의 밀랍 조형물이 설치됐다.

하지만 남북전쟁(1861~1865년)과 그 여파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작된 이 조형물은 썩서 35도 안팎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자 순식간에 제 모습을 잃어갔다.

WP는 “24일 아침에는 급기야 머리가 사라지고 왼쪽 다리가 상체에서 분리됐다”고 전했다.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 샌디 윌리엄스 4세는 “주변 온도가 화씨 140도(섭씨 60도)에 이르지 않는 한 조각상이 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무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 녹듯 조

에서 약 1천500만명이 폭염 경보, 9천만명이 폭염 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밝혔으며, 온열질환 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DC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은 위도가 비교적 높고 녹지 비중이 큰 덕분에 그동안 극심한 더위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으나, 올해는 기온이 치솟으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남다른 상황이라고 한다.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등 동북부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섭씨 기준 15도가량 오르기도 했다.

폭염에 시달리는 나라는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선 홍수와 우박 등 이상 기후도 보고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러한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각종 기상 이변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북한, 6·25 백서 발간 “전쟁 전후 미국 탓에 78조달러 피해”

북한이 6·25전쟁 발발 74주년인 25일 전쟁 당시와 전후 핵 위협 등으로 미국이 일으킨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하며 대미 보복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6·25를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규모와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담은 백서를 펴냈으며 “피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백서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 공갈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인민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화국의 안전 환경을 심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후에 태어난 새세대들까지도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의 과녁”이 돼 “핵전쟁 연습소동의 화약내”를 맡으며 자라고 있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으로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 써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이 전쟁 기간 저지른 ‘살육 만행’으로 124만7천870명이 사망, 91만1천790여명이 납치, 39만1천740여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16조5천334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치른 3년뿐만 아니라 전쟁 전후 테러·생화학전·푸에블로호 사건·판문점 사건 등으로 1945~2017년 29조3천540억달러에 달하는 물질·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부상자와 장애인 발생에 따른 손실, 경제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 등을 모두 합하면 피해 금액은 78조2천37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연구소는 “미국은 자기의 죄과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불법 무도한 주권 침해행위들을 전방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죄행을 끄그러 결산할 그 시간만을 고대하고 있다”며 “‘피는 피로써!’, 이것이 우리의 타협 불가의 피해 보상기준이며 절대불변의 보복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력전→게릴라 소탕전’ 전환 태세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 지대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가자전쟁 군사 작전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주요 전투작전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장기적으로 ‘반란 진압 작전’(counterinsurgency campaign)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국경과 2개의 주요 통로에 군을 주둔시키면서 정보에 기반한 급습과 공습을 포함한 저강도 작전으로 하마스 궤멸 작전을 이어가고, 가자지구 투입 병력을 헤즈볼라의 위협이 집중하는 북부 국경 지대로 보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아사프 오리온 선임연구원은 이런 계획에 대해 “고급 기동부대, 기갑사단, 정규 보병여단, 항공정찰 및 타격 준비자산 확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나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군사작전 전환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단행된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침공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는 하마스의 군사력과 가자지구 통치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상 작전이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환을 꾀하는 세 번째 단계는 ‘게릴라 소탕전’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하마스 지도부와 무장 병력을 겨냥한 병력 집약적이지 않은 소규모 급습 및 공습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저강도 전투로의 전환이 “매우 낫”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 역시 같은 날 가자지구 남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마스의) 라파 여단을 해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분명히 다가서고 있다”며 라파에서의 고강도 군사작전 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세 전환이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협상 진전이나 가자지구 거버넌스 구축 등 전후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타하니 무스타파 선임 팔레스타인 분석가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공격 후 이동’에서 ‘가자지구 주둔’으로 바뀔 것”이라며 “하마스가 통치 주체로서 재건을 시도할 때마다 군사력으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가끔 군사 활동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스타파 분석가는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된 민간의 통치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기껏해야 구호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버넌스 정도”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도 전날 이스라엘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마스 궤멸 전에 전쟁을 끝내는 휴전 협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안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울러 새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도록 하자는 미국과 주요 아랍 국가를 포함한 이스라엘 우방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전직 하원의원 7명, 6·25 기념일에 비무장지대 방문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협회(FMC) 소속 전 하원의원 7명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인 25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방한단에 4명의 하원 전직 공화당의원(김창준, 데니스 로스, 그레그 왈든, 스티브 스타이버스)와 3명의 전직 민주당 의원(메시 마키, 알 포페로 이, 브랜다 로렌스)이 배우자와 함께 참여했다.

왈든 전 의원은 장인이, 스타이버스 의원은 처 종조부가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었다.

왈든 전 의원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고난,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경외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건과 미사

일 실험과 같은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와 JSA 방문은 장인이 유엔군 참전용사였던 만큼 무척 뜻깊은 일”이라면서 “한반도의 어떤 위협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김창준 한미연구원의 초청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모두 7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계만 잘 극복한다면 훨씬 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0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단독 건물</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창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사무실</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헤드됩니다 매매가 49만불</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ingwashington.com

'폭로왕' 어산지, 5년 만에 풀려난다

(위키리스크 설립자)

2010년 미 정부 기밀 수집만족 폭로 간첩죄 인정하며 합의, 재판 마무리 영국 교도소 출소 후 모국 호주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집만족 폭로한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3)가 미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미 정부와 어산지 측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고, 어산지는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어산지는 현재 수감 중인 영국 교도소에서 풀려나면 모국인 호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산지는 26일 오전 미국령 사이판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 미국의 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할 예정이다.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

에서 그는 5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인데, 이미 영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5년의 기간을 인정받아 바로 석방될 수 있다. 어산지 측과 미 법무부의 플리바게닝(유죄·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어산지의 재판이 미국 본토가 아닌, 모국인 호주와 가까운 사이판 법정에서 열리는 것도 미 정부와 어산지 측의 조율 결과란 해석이다. 그간 어산지 측은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 대테러부서 관리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어산지는 예정대로 26일 오전 9시 사이판 법원에 나타날 것이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호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어산지는 "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그간 재판에서 열릴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영국 교도소를 떠났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변호인이었던 아내 스텔라 어산지도



줄리언 어산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어산지는 26일 사이판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AFP-연합뉴스]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그간 재판에서 열릴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영국 교도소를 떠났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변호인이었던 아내 스텔라 어산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주 이맘때쯤 남편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호주 출신으로 2006년 위키리스크를 설립한 어산지는 지난 2010년 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한 외교 문건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를 위키리스크를 통해 폭로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엔 미군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비위가 담겨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2012년부터 영국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그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자 미국은 간첩법 위반 등 총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 요청을 해왔다. 미 검찰은 기밀 정보를 빼내 폭로한 어산지의 행위가 언론 취재 수준을 넘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산지 측은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이라며 법정 소송을 통해 맞서왔다.

그간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미국 측에 어산지 사건의 종결을 촉구해 왔으며, 호주 의원들은 어산지의 호주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영국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곳곳에선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어산지의 가족은 그가 10년이 넘는 법적 공방으로 건강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호주 정부의 어산지 귀환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산지의 석방으로 인해 미 정부 역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했다. **임성기** 기자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란 대선 레이스에서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외신들은 28일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 후보 2명이 선두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개혁파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외교관 출신인 사이드 잘릴리(59) 전 이란 핵협상 수석대표(36.7%),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라바프(63) 국회의장(30.4%), 의사 출신 마수드 페제시키안(70) 의원(28.3%)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인 잘릴리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지낸 강경 이슬람

하메네이 측근 vs 군사령관 출신 선두다툼... 개혁파 의사 3위

(잘릴리)

(갈라바프)

(페제시키안)

이념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장-테헤란 시장을 역임한 갈라바프는 2003년 학생 민주화 시위 때 실탄 발포를 명령한 인물로 알려졌다.

페제시키안은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대선 출마자 80명 중 최종 후보로 승인한 6명 가운데 유일한 개혁파다. 뉴욕타임스(NYT)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그를 후보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투표율을 높여려는 정부 계획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페제시키안은 심장외과의 출신으로 타브리즈 의과대학 총장을 지냈다.

이란 28일 대선, 후보 3명 각축전 부동층 62% 달해 막판 최대 변수 NYT "투표율 높여 개혁파 남겨"

2022년 하잡 시위 당시 이란 여성 복장을 규제하는 도덕 경찰과 정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보수파는 이슬람 교리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파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변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은 지난 11~13일 진행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부동층이 62%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남은 3명의 후보인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내무장관,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셰미 부통령 등이 막판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층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보수파 후보 중 일부가 물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 결과는 30일까지 집계될 수 있으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인구 9000만 명의 이란에서 대통령은 권력 구도상 서열 2위이고, 군 통수·행정·사법의 최고결정권자는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다. 라이시 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이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데서 보듯 차기 대통령 선출은 이후 최고지도자 계승 문제와도 연결된다.

NYT는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여성의 권리"라며 "내부 시위와 미국·이스라엘과의 긴장 속에서 이란이 대통령 사망에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기회"라고 평했다.

백일현 기자

중국서 또 외국인 흥기 피습... 일본인 모자 다쳐

생명 지장 없어...중국 안내원 중태 주중 일본대사관 "외출시 유의"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머니와 아들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흥기에 부상을 입었다.

앞서 이스라엘 외교관의 가족과 미국인 대학 강사들이 습격을 당하는 등 외국인 대상 범죄가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25일 NHK 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장쑤성 쑤저우(蘇州)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중국인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일본인 여성과 아들, 중국인 여성 스쿨버스 안내원이 다쳐

다. 용의자인 중국인 남성은 하교 중인 어린이를 태운 쑤저우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를 공격했다. 범행 직후 스쿨버스 여성 안내원과 주변 학부모 등에게 제압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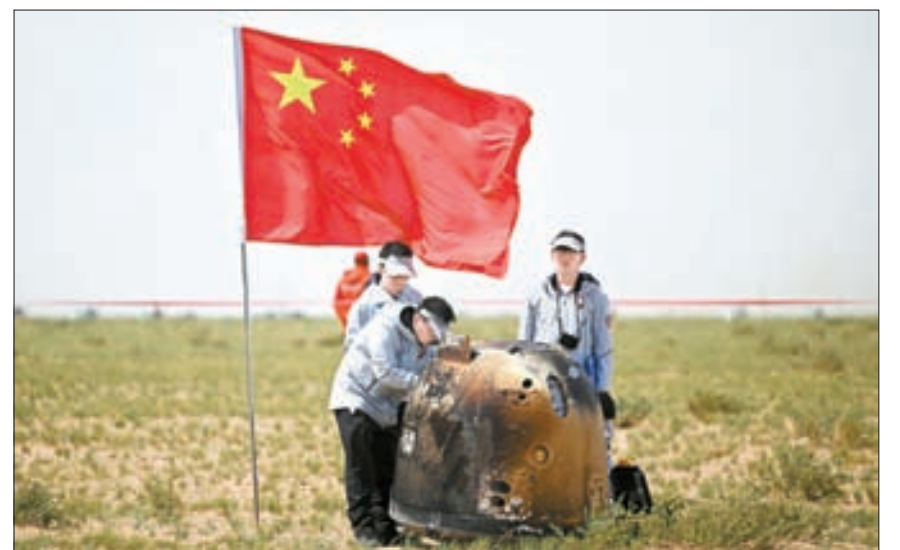
피해를 본 3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중국인 안내원은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흥기에 찰려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중국 당국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흥기 등을 통한 공격에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지린성 지린(吉林市) 베이산 공원에서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칼리지에서 과격된 강사 4명이 중국인 남성의 흥기 공격에 다쳤다. 피해자 중엔 애당 자브너 미국 하원의원(아이오와의 동생인 데이비드 자브너 강사도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일련의 사건이 외국인 혐오 범죄가 아니란 입장이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와 유사한 우발적인 사건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승호 기자



세계 최초 달 뒷면 암석 신고...중국 '창어 6호' 귀환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암석 샘플을 채취한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의 귀환 캡슐이 25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 착륙했다. 연구원들이 수거한 창어 6호는 베이징의 연구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신화-연합뉴스]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현 60세 남성-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연금 비용이 입금)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한동훈 캠프에 의원 17명 보좌진 ... 주진우·송석준도 가세

조직도 입수...현역의원들 우회 지원
인요한·박진호, 원희룡 러닝메이트
여성의원 상당수는 나경원 우군
윤상현은 당 기독교회 회장 취임

7·23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여당 현역 의원이 최소 17명이라는 내부 자료가 나왔다.

2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동훈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17명의 현역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34조로 인해 의원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동훈 캠프의 코어 그룹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참여 인사였다. 한 전 위원장 비서실장이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시 사무총장 장동혁, 대변인 박정하, 비대위원 한지아 의원 등은 복수의 보좌진을 한 전 위원장 캠프에 파견했다.

한때 친윤계였던 배현진 의원의 보좌진도 한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 3선 송석준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보냈다. 검찰 출신인 주 의

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 최측근이었으며, 지난 총선에선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했던 초선 김소희·김위상·우재준·유용원·정성국 의원 등도 보좌진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의 재선 김예지 의원과 초선 고동진·김상욱·박정훈·진종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우군 세력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지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30명 전후"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은 신지호 전 의원이 맡는다. 그 아래 ▶공보 ▶상황 ▶SNS홍보 ▶메시지 ▶일정 ▶법

률 ▶네거티브 ▶방송토론 등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공보는 앵커 출신의 정광재 전 당 대변인, 홍보는 제일기획 출신의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총괄한다.

한편 당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후보의 세 불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친윤계 중심의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에 참석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의 잠재 대선주자와 잇따라 회동하기도 했다.

계파색이 얽은 당 최다선 조정태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여성 의원이 나 의원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

과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득으로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구자근·정동만 의원 등 영남지역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원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경북 지역을 방문해 당원간담회를 열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기독교회' 신임 회장에 취임하는 등 세 확장에 주력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 등 비윤성향 인사를 대상으로 지지를 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수 전 의원이 캠프 총괄이다.

김기정 기자



서울이 나선 여당 당권후보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당권 주자 4인방이 2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각각 표심을 얻기 위한 바쁜 행보를 시작했다. 왼쪽 사진부터 서울시의회 당원총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 경북도청을 방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당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 후보등록을 위해 당사에 들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한다. (뉴스·연합뉴스)

나경원 6·25 맞아 "우리도 핵무장해야" ... 원희룡 TK 돌며 "국정동력 회복"

화성공강 참사 수습방안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일인 25일 당권 주자들의 세(勢) 불리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나경원 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이날 오전 SNS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짧은 글로 국민의힘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그는 보수 외곽 조직인 '새

로운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중량급 인사들은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는 믿지 못한다"(유승민 전 의원), "핵보유국의 이뒀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오세훈 서울시장)며 호응했다.

반면에 경쟁자들은 "우리가 (북한과) 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한동훈), "독자적 핵무장이 말로만 되는 것도, 당장 되는 것도 아니다"(원희룡),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 방안"(윤상현)이라고 반박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안동 경북도청에서 연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참패 이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 신뢰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당내 무기력한 좌절감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상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회와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만났다. 이어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했다.

김민정 기자

북, 연이틀 오물풍선 도발 ... 군 "확성기 방송 유통성 있게 시행"

'천무' 실사격 훈련으로 대북 경고

보름 만에 재개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도 25일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군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별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발까지 대응해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각종 훈련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보내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오늘은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대응 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계속 주시하겠다"며 "대북 심리전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유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24일) 밤 오물풍선 350

여 개를 살포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카드 논의를 이어가다 이날 오후 들어 확성기 방송을 일단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이번엔) 확성기 방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선 북한이 이번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피해 유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실제 합참이 이날 수거한 오물풍선에는 안전 위해물질 없

이 대부분 종이류 위주의 가벼운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지난 20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나뉠 수위를 조절해 대응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전방 전 지역에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연이틀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합참은 25일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 부양했다"며 "경기도 북부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군 장병이 25일 서울 석관동에 낙한 북한발 풍선 오염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 합참]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라이어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SOLD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틴 콘도

SOLD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SOLD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빛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순간 - 반지천국 진주보석쇼

Rings Heaven

50% 특별세일!

한여름의 주얼리 페스티벌

한여름 패션의 완성! 선글라스 공짜선물팡팡!!

여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썸코의 특별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300불이상 제품 구매시 고급 선글라스 증정!

- ※ 선글라스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1팀 1인 1회 1개 증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증정 하지 않습니다.
- ※ 선글라스 소진 시 다른 제품으로 선물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 선글라스 공짜선물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름보석 칼라스톤

1200세트 전격출시

무조건판다! 무조건반값!

2024 여름맞이 핵폭탄세일 \$88불코너!!

진주 귀걸이 / 펜던트 / 반지 / 브로치 등
2024 여름맞이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
인기짱! 최저 88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타이슨스코너 일정

2024년 6월 27일(목) 부터 28일(금)까지 2일간
웨스틴 호텔 타이슨코너 The Westin Tysons Corner
지하 1층 도그우드룸 (Dogwood Room)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볼티모아 일정

2024년 6월 29일(토)-30일(일), 단 2일간
장소: 베세토 백화점 지하 1층 특설매장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H마트 옆)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GIA SOPHIA Y KANG
GIA 진주보석 감정사
미국 GIA 진주보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KOBE JEWEL GROUP HELENAIKO

Rings Heaven GEMKO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 '불법 파견' 의혹

한달 전 설립된 업체가 인력 공급
"우리는 수수료 받고 사람만 대줘"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인력파견 업체가 파견한 노동자였다. 일각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아리셀은 '메이셀'이란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셀은 한달여 전인 5월 7일 1차전지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등기한 업체다. 그런데 이 업체의 등기상 소재지는 화재 발생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 포장 작업장이었다. 아리셀이 메이셀을 통해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받은 게 아니라 사내 하도급 업체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리셀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파견 수수료만 받고 사람을 대주

는 파견업체"라며 "관리감독은 전부 아리셀에서 했고, 우리는 아리셀 공장 자체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외국인 18명 전원이 메이셀 소속"이라고 했다. 주소지를 아리셀 작업장으로 한 데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며 "왜냐하면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으면 일단 절차도 까다롭고 노동부 점검도 많고 하니까"라며, 사실상 불법 파견업체임을 시인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비자 신분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이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과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특례고용 허가가 가능하다.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며 "H2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불법 고용 혹은 파견을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불법 파견은 없었고 안전교육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르면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특정돼 있는데 배터리를 포장하는 단순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고용해야 할 인력을 파견 형식이든, 하도급 형식이든 불법·편법 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리셀과 메이셀이 하도급 '원청-하청' 관계라면 같은 건물에서 아리셀이 관리감독을 맡은 정황이 보여 '위장 하도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현재 파견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디 소속으로 근무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후 산업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과수와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5일 화성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 현장에서 오열하는 유가족.

여당 한달차 초선, 야당 친명일색... '최고' 아닌 최고위원

여야 최고위원 후보 위상 추락 논란
여권 "당대표 후보들, 우군 심어둬"
야당 일각 "이재명 친위대 선거 돼"
"대표·최고위원 분리경선 탓" 지적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 신청 접수가 25일 마감됐다. 당 대표 선거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의 4파전 구도인 가운데, 최고위원(4명) 경선에 장동혁(재선)·김민전·박정훈·인요한(초선) 의원과 김세의·김재원·김형대·박용찬·이상규·함은경(원외) 후보 등 10명이 나섰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45세 이하) 후보로는 진중오(초선) 의원과 원

외 인사 10명이 등록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민전 의원은 '여성 최다 득표자 당선' 당규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당부 전반을 심의·결한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장 의원을 빼 두가 의원직 1개월 차 초선이다. 원외 후보들도 김재원 전 의원(3선)과 일부 기초의원을 빼면 공직 경험이 일천하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최고위 디플레이션(deflation·가치 하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던 장동혁·박정훈

의원은 일찌감치 한 후보의 '러닝 메이트'를 자처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진중오 의원에 '한동훈계'다. 당 혁신위원장 출신인 인요한 의원과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원외계 후보의 권유로 입후보했다. 인 의원은 25일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한달 동안 열심히 뛰어 원외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마이너 리그'도 아닌 '루키(유망주) 리그'로 전락했다"며 "일찌감치 특정 당권 후보에 기댄 후보들이 등장하자 '뒀 하러 나가냐'는 정서가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론 관계자는 "이러바 '이준석 사태' 때 선출직

최고위원 4명(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이 사퇴한 뒤 비상체제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보니, 당 대표 후보들이 우군을 최고위에 심어두려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선 후보군의 무게감보다 다양성이 문제다.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4선)·전현희·이언주(3선)·민형배·한준호·강선우·김병주(재선) 의원 중 '비명계'는 없다. 외려 총선 기간 비명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교육연수원장과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최고위원 출사표도 '명비어전가' 수준이었다. 당내 일각에선 "차기 리더가 아닌 '이재명 친위대'를 뽑는 선거가 됐다" (수도권 의원)거나 "무게감 있는 비



주류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불문율이 깨졌다" (중진 의원)는 한탄이 나온다. 조진만 특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 모두 극단적 '웬덤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도부의 획일적 구성 압력이 /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통

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다. 국회 정상화 수순 첫날부터 야당이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다.

이날 법사위는 개원 후 처음으로 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

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반발해 회의를 거부해 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위원들)이 지금 사·보임됐는데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법사위 열자는 정시에 출발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고, 곧바로 소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지각 출석으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이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 없다"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반

말이야"라고 외치면서 고성으로 갔다.

공방 끝에 법사위는 3분간 정회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두 사람은 "국회법을 공부하라" (정청래),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유상범)고 언성을 높였다.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고, 심도 있는 논의 /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뱀뱀)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리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폭탄 같은 리튬, 특별관리서 빠져... 업체 자체 점검으로 끝



▶ 1면 '화성 참사'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A씨(36)의 남편 박모(36)씨는 부인과 나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당시 공장에 연기가 나서 경고음이 두 번쯤 울려 직원들이 당황했다"고 전하며 "그때 조치를 했다면..."이라고 탄식했다. 박준언 아리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화재가 났던 걸 인정하면서 "작업자가 불량품을 발견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 제때 진압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아리셀은 2019년 리튬을 기준보다 23배 초과 보관해 적발돼 벌금을 낸 이력이 있었다. 2020년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불이 난 건물에는 소화전 및 소형·대형 소화기를 총 2대만 비치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피해를 키운 리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튬은 자연 발화성 및 금속성(禁水性) 속성을 지닌 금속물질이라 고온·고압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면 쉽게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

학물질'로 분류된다. 직접 불로 가열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면 상온에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할 가능성이 낮고 물질 자체의 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취급자 안전교육이나 정기 검사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다.

리튬은 화재 발생 시 기존 분말·질식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데도 전용 소화기도 사실상 없다고 한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상 화재는 일반 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등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화기구(약제) 안전기술 기준도 이 유형에 따라 개발하는데, 리튬 같은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원들이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모습이 담겼다.

아리셀은 또 출입구 쪽에 배터리 3만5000개를 적재해 피해를 키웠다. 노동자들은 불을 피하려고 출입구 반대쪽으로 달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은 "리튬금속을 분리된 방이나 건물에 저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3층 작업장은 아리셀의 '군 납품용 1차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다. 군용 리튬전지는 과거에도 폭발사고가 잦았다. 한국산업기술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육군에서만 95건의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번 폭발·화재를 일으킨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공학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차전지는 휴대전화·노트북·자동차에 흔히 사용돼 일반인들도 폭발·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잘 돼 있지만, 1차전지는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방당국은 이날 3동 2층 통로에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시신 1구를 수습하면서 사망자 23명을 모두 찾았다. 희생자 중 한국인은 5명, 그외 외국인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여성 17명, 남성 6명이다. 경찰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네의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한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보람·손성배·이영근 기자

1. 화재현장. 2.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3.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김중호 기자 뉴시스



“누나 어딴냐” “내 딸은 목걸이 했다” 유족, 장례식장·경찰서 돌며 수소문

사망자 23명 중 3명만 신원 확인 뇌수술 받고 봉대 맨 채 온 남편도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2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소방 당국은 25일 수습된 실종자 시신 1구는 한국 국적의 김모(47)씨, 전날 수습된 시신 1구는 중국동포 출신으로 귀화한 이모(46)씨라고 밝혔다. 전날 처음 신원이 확인된 김모(52)씨에 이어 지금까지 한국인 남성 3명의 신원이 파악된 셈이다. 나머지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5개 장례식장과 경찰서, 참사 현장 등을 돌며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함백산주모공원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 3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우리 딸 목걸이를 확인해야겠다” “차량이 회사에 주차돼 있으니 차기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소지품을 포함해 모든 게 소실된 상황이라 ‘우선 DNA를 채취하셔야 한다’고 화성서부경찰서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도 전날 오후 8시30분쯤 송산장례문화원으로 달려와 “어디 가야 누나를 볼 수 있냐”며 두리번거렸다. 함께 온 A씨 지인은 “119에 연락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물어봤다”며 “가족을 다 동원해서 찾으러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

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라오스 국적의 사망자 쑨 씨(51)는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머리에 흰 봉대를 감은 채 화성중앙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지난 19일 뇌혈관 수술을 받고 이날 퇴원하자마자 충북 괴산에서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는 “생존한 라오스 동료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습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원 확인에 필요한 DNA를 채취해 가족과 비교할 예정이다.

최서인·이아미·박종서 기자

강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디플리케이션 양상’을 보이게 된 건 2010년대 중반 도입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경선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대표 선거 차점자가 최고위원으로 지도

부에 배정될 때만 해도 차세대 리더들이 전당대회에 나와 체급을 올렸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박준언 연구원 원장은 “대통령 또는 대표와의 친소 관계가 당락의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오현석·윤지원·강보현 기자

가 이뤄지지 못했으니 오늘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도 다 때가 있다”며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법안은 재석 위원 17명 가운데 야당 위원 1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국민회의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속려 기간도, 소위원회 절차도 생략된 쑤스 개정안이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포장과 달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8월에 맞춰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꾸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국회법·MBC·EBS 이사회)은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설립해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등으로 안건을 받고 있다. 전민규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도깨비 장마, 주말에 수도권 상륙

갑작스런 물폭탄 쏟아질 가능성
한낮 최고 33도, 짙통 더위도 지속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할 전망이다. 정체전선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쪽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6일 늦은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27일 밤까지 남부 지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이다. 26~27일 제주에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해안 20~60mm, 전남 내륙·전북·경남 중부 남해안 10~40mm, 부산·울산·경남 내륙 5~20mm, 대구·경북 남부 5~10mm의 장맛비가 예상된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주중에는 대체로 맑다가 주말부터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늦은 밤에 내리는 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다. 정체전선은 다음달 5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부 지역이 주말 동안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장마철에 정체



비 멈춘 사이 해바라기 '활짝'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25일 오전 제주도 변영로 인근 농장에 해바라기와 수국이 활짝 피어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상청은 26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뉴시스]

전선 부근에 발달한 저기압이 갑작스럽게 물폭탄을 쏟아내 '도깨비 장마'라는 말까지 생겼다. 지난 19일에도 정체전선 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탓에 제주에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최근 중부 지역에 북서쪽에서 지속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장마 시작이 늦춰졌다. 하지만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수도권까지 밀어 올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29~30일 서해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저기압이 발달한 채로 중부 지역을 통과하면 수도권에 물폭탄

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저기압의 예상 이동 방향은 27일 즈음 윤곽이 잡히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썩썩한 더위도 지속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27일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예상된다. 습한 가운데 기온이 30도 이상 높은 곳은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이번 주말에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기록하겠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의 체감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구로구, 공원 지하주차장 내일 강행 주민들 "유일한 녹지 훼손" 반대집회

서울 구로거리공원(구로동 50번지)에 지하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구로구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며 반대한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구로구는 오는 27일 열리는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건설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거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반대 주민단체는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구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거리공원 지하에 연면적 7313㎡, 총 202면(지하 1층 98면·지하 2층 104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예상 사업비는 약 230억원이다.

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장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이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는 3200여대에 이른다.

반면 주민들은 구로거리공원이 사실상 일대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란 점을 반대 이유로 든다.



건설 과정에서 공원 및 부속 수목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공원이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주차장을 지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문을 연 지 40년 된 이 공원은 3만5920㎡(약 1만880평) 면적에 총 1.24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해 말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처리 비유를 결정했다.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도 팽팽히 맞섰는데, 지난 4월 주민설명회에서는 양측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구로구는 지난달 초 반대 주민도 참여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수기 기자

김진표 "팬덤은 0.01%뿐, 전체 국민 보고 정치해야"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입니다. 팬덤의 노예가 되면 그건 이미 잘못된 정치예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5일 "후배 정치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지난달 퇴임한 그는 26일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를 낸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의장은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등을 거쳤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당선돼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그는 회고록을 쓴 계기에 대해 "어쨌든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 그간 경험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의



김진표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목에 '축적'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0개 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며 "반대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담았다. 설령 군인이 다스린 정부였거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정권의 정부였을지라도 우리 사회는 그 시간 분명 무언가를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을 꼽았다. 그는 "당시 재무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김 대통령 지시로 실무 총책임자를 지고 추진했다.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다. 땀이 뻘뻘 흐르는 땀시 더운 여름이었는데,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합리적 온건주의자'라는 평을 듣는다. 자신도 "진보정당에 있었지만, 중도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런 그가 정치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장 염려하는 것은 팬덤 정치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으로서 참석한 마지막 행사인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정치와 팬덤 정치 폐해를 피하고 살아 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후배 정치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헌법기관'이다"라며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답게 행동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았어도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 유권자 중 당원은 5%밖에 안 된다. 팬덤? 팬덤은 0.01% 정도다.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근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하 공용주차장 건설 반대 집회를 하는 구로구주민들. [사진 독자]

'국내 첫 최장시식' 윤대원 한림대 이사장 별세

한림대의료원 수장인 윤대원(사진)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79세.

고인은 1945년 윤덕선 학교법인 일송학원 설립자 장남으로 태어나 1969년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했다.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이식 등을 연구하고, 이듬해 귀국한 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고인은 1987년 국내 최초로 최장시식 수술에 성공했고,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스웨덴 옘살라데에서 아시아 최초로 '린네 골드 메달'을 받았다.

누구보다 화상환자 치료에 열성이었던 그는 2008년 한림화상재단을 설립하고, 화상 흉터와 치료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소아 환자를 위해 화상병원 학교도 운영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윤희성 학교법인 일송학원 상임이사, 차남 윤희태 도움박물관 관장, 장녀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있다. 빈소는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정종훈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 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질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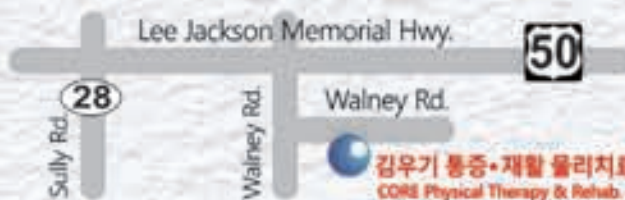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겉까’의 띄어 쓰기

“그런겉까”를 붙여 써야 할까, “그런 겉까”로 띄어 써야 할까.

‘겉까’의 띄어쓰기를 판단하려면 ‘겉까’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따져 보면 된다. “그런겉까”에서 ‘겉까’는 ‘겉일까’의 줄임말이다(‘가’는 ‘겉’의 구어), ‘겉’은 항상 띄어 써야 하므로 “그런 겉까”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건지’나 ‘겉’도 그렇다. “그런건지”에서 ‘건지’는 ‘것인지’의 준말이므로 “그런 건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렇다면 “곧 알게 될거야”의 ‘될거야’는 어떨까? ‘거야’ 역시 ‘것이’의 준말이므로 ‘될 거야’로 띄어 써야 한다. “그렇게 아니야”에서의 ‘게’도 마찬가지다. ‘것이’의 준말이므로 띄어쓰기를 해 “그런 게”로 표기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준말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것은 비슷하게 생긴 ‘아닐겉’이다. ‘아닐겉’에서 ‘겉’을 ‘것’으로 바꾸어 보면 말이 되는 듯해 ‘아닐 겉’로 띄어 쓰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때의 ‘겉’은 위의 예와는 다르다. ‘아닐겉’은 ‘아니+겉’ 형태다. ‘겉’은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어미다.

“아닐겉” “너보다 키가 클겉”에서는 ‘겉’이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 “내가 먼저 사과할겉”에선 ‘겉’이 뉘우침이나 아쉬움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겉’은 띄어 써서 안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프리즘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태세 전환



안유희
LA중앙일보
사회부장·국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득표 전략에 나서면서 이민 정책에서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바이든은 친이민, 트럼프는 반이민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만큼 정책 방향의 차이가 선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트럼프는 지난 20일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책은 아니다. 말에 불과하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놀랍다. 트럼프가 누군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재선 되면 국경 통제와 이민자 단속을 펼치겠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 놀라운 태세 전환이다. 어찌 보면 바이든을 넘어서는 친이민 발언이다.

태세 전환은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바이든은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이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망명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불법 월경한 이들에 포용적 정책을 쓰면서 이들을 떠맡은 주나 도시는 비명을 질렀다. 친이민적인 뉴욕시마저 비용과 행정 부담, 시민들의 반발에 포기 선언을 했다. 플로리다에선 한 여성이 불법 월경 이민자의 범죄에 사망하며 전국적 이슈가 됐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바이든이 망명을 제한했다. 반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정

책을 거스르는 것이고 방향으로 보면 트럼프 성향에 가깝다.

두 사람의 태세 전환은 다 대통령 선거 때문일 것이다. 이기려면 뭘 못할까. 상황이 그렇다. 대선은 뚜렷한 우세 없이 정세 상태인데 뾰족한 수도 돌파구도 안 보인다. 성 추문 압박을 혐의로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변화는 원위치다. 바이든도 아들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등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충격은 없다.

양쪽 지지자는 어지간해서는 지지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지지층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딱히 상대를 더 공격할 포인트도 없다. 나올 건 다 나왔고 새로운 게 없다. 대외 정책도 경제 정책도 큰 이슈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딱 좋은 소재다. 대선 승부는 경합주에서 결정 나고 경합주는 작은 표차이로 뒤집을 수도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그렇다. 바이든이 발표한 새 정책은 곧바로 경합주를 겨냥한 대선용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이 밀리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조지아의 판세 뒤집기 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졸자 영주권 부여를 말한 곳은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자 모임이었다.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정책 노선은 지키되 필요할 때는 역방향 정책으로 치고 빠진다. 정책 크기가 작아 역방향이지만 큰 영향은 없지만 꼭 필요한 작은 표 차이는 바꿀 수 있다. 특히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효과적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정책 특징은 적어도 대선 기간에는 예외와 구제가 될 듯하다. 전통적 방식인 쿼터 조정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오랜만에 유연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둘 다 선거 승리용이다. 이기려고 잠깐 상대를 흉내낸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이르지만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니 이마저도 유연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을 보수층은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려 문호를 연다고 해석한다. 한 두 번이라도 트럼프가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바이든이 망명 제한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소한 없는 것보단 낫다.

열린광장

한인 팬도 화제의 연극 만났으면



이광진
문화기획사 에이콤 대표

요즘 서울에서는 일생 꼭 봐야 할 고전 연극 3편이 동시에 무대에 올려져 많은 연극 팬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4대 장막극 중 ‘벚꽃동산’ (연출 사이먼 스톤)이 지난 6월 4일부터 LG아트센터서울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어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연출 손진책)이 6월 9일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맥베스’(연출 양정웅)는 7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 연극은 최고의 연출가와 스타 배우들이 완성해 낸 완벽한 공연이라는 평단의 찬사를 듣고 있으며, 공연이 시작된 작품들은 전석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출연진의 면면을 살펴보니 화려하다. ‘벚꽃동산’에는 칸의 여왕 전도연과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등이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되었고, ‘맥베스’에는 국민배우 황정민과 송일국, 김소진, ‘햄릿’에는 대한민국 연극상 중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이해랑연극상’의 역대 배우 부문 수상자가 11명

이나 출연한다. 이들 중 이호재,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재건, 김성녀, 연출 손진책은 지난 30년 동안 에이콤이 LA 초청 공연을 했던 ‘MBC 마당놀이 심정전’, ‘피의 결혼’, ‘피고지고 피고지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지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장수사회’, ‘어머니’, ‘벽속의 요정’ 등의 작품을 통해 한인 연극팬들과도 만났던 연극인들이다. 연극계의 대가들이 총출동해 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연극들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연극 팬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인 연극 팬들을 위한 몇몇 초청 연극이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마당놀이

인간문화제 윤문식이 출연한 극단 시민극장의 ‘짜가지 흥부전’(장명수 각색, 장경민 연출)이, 그리고 2019년에는 수상한 할아버지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다룬 최주봉, 양재성, 윤문식 공동 주연의 ‘할배열전’(김지훈 작, 주호성 연출)이 LA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월셔이벨극장에서 모든 관객을 울렸던 극단 글로브의 가족 연극 ‘동치미’(작·연출 김용을)가 우리가 만난 마지막 작품이다. 그때 객석을 가득 메운 한인 연극 팬들은 공연이 끝난 후 한복소리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좋은 연극을 만나 마음껏 향유하며 연극의 진수를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 특구인 대학로에는 120여 개의 소극장이 있어 365일 연극 공연이 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우리말 연극을 접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한인 연극인들의 공연이나 한국 극단의 초청 공연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서울에서 뜨겁게 공연 중인 고전 연극들을 미주의 한인 연극 팬들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반듯이 서있던 참수리... ‘임무 중!’ 외침 같아 울컥했죠”

진해에 마중 나온 사람 중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김동완(46) 상사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 심해에서 거친 작전을 하는 군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좋고 친절한 인상의 얼굴 때문이었다.

“저는 베테랑이라 불릴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군은, 특히 SSU는 전부 팀워크입니다. 혼자만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를 과대평가하는 기사 쓰러거든 인터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난구조전대는 영문명 ‘Ship Salvage Unit’의 두문자인 ‘SSU’로 불린다. 이름에서 보듯 전투보다 구조에 특화됐다. SSU 대원 자격은 까다롭다. 바다 40m 깊이로 잠수하는 ‘자격 잠수’는 기본이다. 수중 폭발과 용접 기술도 갖춰야 하며, 해저 300m까지 ‘포화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원사는 이 SSU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제2연평해전·천안함·세월호 등 ‘서해 3대 비극’ 구조 작전에 전부 참여한 이다. 사흘 뒤인 29일은 제2연평해전 22주기. 연평도 앞 바다에서 북한의 기습에 맞서다 침몰한 참수리 357호정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다. 김 상사에게 그 기억부터 물어보았다.

태극기부터 올라온 참수리

-22년 전 참수리 인양할 때 가장 기억나는 일은요?

“먼저 입수했던 선배들이 ‘야, 배가 향해 중이더라!’고 해요. 뭘 말인지 몰랐어요. 직접 수심 20m 침몰 지점에 내려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침몰선은 대개 뒤집혀있는데, 참수리는 반듯이 서 있었어요. 풍향계가 돌고, 태극기도 펄럭이고... ‘아직 임무 수행 중!’이라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 잠수했던 동료들만 알 거예요. 나중에 배를 인양하는데 맨 먼저 태극기가 드러났어요. 해군참모총장님이 일어나 말없이 경례하더군요. 저희도 경례했어요. 다들 ‘배가 살아 있네’ 했어요.”

-인양한 참수리호를 후송하는 임무도 했다면서요.
“배를 바지선에 올려 평택 2함대로 후송하면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20mm 벌컨포 전면의 투명창이 깨져있고, 후면의 좌석까지 박살 나 있더군요. 사수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가 끝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다 북한 포탄에 온몸이 관통당한 현장을 눈으로 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배에 총탄 구멍도 수없이 많고 기관총 탄피도 잔뜩 굴러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쫓으면 저랬을까... 지금도

6월이면 그분들 생각이 납니다.” (그는 눈시울을 훔쳤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에 폭침된 천안함 구조에도 참여했죠?

“부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어요. 밤 9시 30분쯤 ‘서해에서 맞았다’고 비상이 걸렸어요. 부대장이 ‘못 같이 유인하는 사람 손들어’ 해요. 죄다 가겠다고 했고, 5시간 만에 평택항에 도착했어요. 치누크 타고 침몰 지점 입수하는데, 바닷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리 들어간 선배가 ‘빌딩 꼭대기에서 태풍 맞는 수준’이라고 할 만큼 유속이 빨랐어요. 오리발 아무리 세계 차도 떠내려가요. 결국 이를 뒤에야 두 동강난 배를 찾았어요. ‘왜 빨리 구조 못 하나’는 비판이 거셌지만, 줄 붙잡기도 어려울 만큼 유속이 셧어요. 저희 표현으로 ‘아구말린다’고 그러거든요. 결국 대원들이 ‘예외 노출 잠수’를 신청했어요. 잠수사가 갇힌 것 같은 위험한 상태를 상정한 잠수로, 잠수병 위험이 급증하는 극한 잠수에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죠. 그만큼 절박했어요.”

-함께 구조에 나선던 UDT 교관 한준호 준위가 전사했죠.

“그분을 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인지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군복 입어라’는 명령 듣고 군복 차림으로 갑판에 오르니까 헬기가 날아가요. 다들 경례했고, 저도 따라 했죠. 나중에 보니 그분 유해를 실은 헬기였어요. 얼마 뒤 유가족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더는 희생을 원치 않는다. 배를 인양해 달라’고요. 그분 덕분에 구조에서 인양으로 전환했고, 예외 노출 잠수도 안 하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물에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보트 옆에서 ‘딱’ 하고 솟구친 물체

-인양된 천안함에서 시신을 수습했다면서요.

“매트리스 등 물건이 가득해 진입조차 힘들었어요. 자칫 시신을 밟을 수 있으니, 손을 매트리스 사이로 찔러보면서 전진했어요. 뭔가 ‘딱’ 걸리면 시신이에요. 매트리스부터 빼내는데 물을 먹었으니 오죽 무겁겠습니까? 서너명이 달려들어 겨우 빼냈죠. (시신 상태는요?) 사후 경직이 안 풀려 딱딱해요. 다들 눈 감은 얼굴인데 표정이 그냥 자는 사람 같아요. 귀나 코에 검붉은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피 흘리면서 숨겨간 거죠. 그분들을 들것으로 운반하는데, 선배들이 ‘배에서 나갈 때 발부터 나가게 하라’고 엄명해요. 망자에의 예우였죠. 철칙이었어요.”



SSU 김동완 상사는 인터뷰하면서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구조에 참가한 참수리정, 천안함, 세월호 모두 슬픈 사연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는 “수심이 아무리 알아도, 바닷속은 절대 모릅니다. SSU는 어떤 작전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 구조에도 참여했죠?

“그때 제가 타던 청해진함이 거제도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었어요. 갑자기 ‘긴급 상황’이라길래 서둘러 수리를 끝낸 함을 타고 밤 11시 40분쯤 도착했어요. 영화 속 전쟁터 같더군요. 조명탄 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배를 봤는데, 뱃머리 밑 돌출부만 떠 있더군요. ‘끝났네’란 감이 왔어요. 이튿날 보조사 2명과 보트 타고 수면 탐색에 나섰는데 갑자기 ‘딱!’ 하면서 뭔가 솟구치더라고요.”

-뭘였습니까.

“여학생 시신이었어요. 긴 머리에... 평온하게 자는 얼굴이었는데 몸은 차갑더라고요. 주먹을 꼭 쥐고 있어 펴보니 손톱이 죄다 날아갔어요. 보조사가 놀라 머뭇거리다 웃기만 잡더라고요. 제가 겨드랑이 잡고 함께 끌어올렸죠.

학생은 배에서 나오려고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다가 숨졌고, 구멍조끼 입었으니 사후에 떠오른 거죠. 그날 하루만 6명 넘게 그런 시신이 떠올랐고요.”

-잠수해서 배 안의 시신도 수습했다면서요?

“수심 30m에 가라앉은 선미의 다인실을 맡았어요. 유리창 깨고 들어갔죠. 주황색 물체들이 보여 구멍줄인 줄 알았는데, 실은 구멍조끼였어요. 정확히는 조끼 입고 숨진 시신들이었죠. 딱치는 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신을 잡고 상승하다 보면 긴장감이 조금 해소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직도 수백명 남아있다. 빨리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조바심이 드는데, 시신이 너무 많으니 숫자가 주는 느낌이 안 와 막막했어요. 배에 올라와 휴식하면서 TV를 보는데, 모든 채널이 세월호 보도였어요. 대원들이 그거 보고 다들 울어요. 화장실에

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눈이 충혈된 후배에게 ‘힘드니?’ 하면 ‘아닙니다!’ 해요. 하지만 목소리부터 달라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아니에요’ 하는 게 다 들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예 두드리면서 ‘동료들 장비 준비 도와줘라’고 했어요. 노련한 선배들은 그런 순간 후배에게 일을 시켜요. 판생각 못 하게 해주려고요.”

“그날 그 바다에 그들이” 기억해 주길

-잠수사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정말 300m까지 잠수하나요.

“그 깊이에선 잠수정을 타고 작전하고, 100m 안팎까지는 직접 잠수합니다. 2010년 11월 제주 바다에서 여선과 충돌해 침몰한 참수리 295정과 2012년 12월 서해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은하 3호 잔해 인양 때 수심이 각각 125m, 88m 였는데, 시야가 좋아 어렵지 않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바다 밑이 정말 추워요. 한여름에도 섭씨 7~8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밸브로 잠수복 안에 온수를 공급해요. 한번 시험 삼아 밸브를 잠가 봤는데, 30초 만에 몸이 얼어버리더라고요.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감압이죠. 300m 잠수하고 부상하면 잠수병을 막기 위해 보름을 감압 체임버에 갇혀 지내야 돼요. 지루함의 연속이에요. 6명이 5평 공간에서 지내죠. 밖에서 빔으로 쬐주는 영화 보는 게 유일한 낙이죠. 용변도 그냥 못 봐요. 불일 본 뒤 외부에 ‘배출’이라고 연락해야 해요. 오물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 탱크로 들어가거든요. 오물을 내려보낸 번기 밸브가 잠겨 탱크와 차단된 게 확인돼야 밖에서 보조사가 탱크를 열고 오물을 처리합니다. 그냥 오물을 내려버리면, 온몸이 번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내장이 터지고 전신이 갈가리 찢겨나갑니다. 체임버 안팎 압력의 엄청난 차이 때문이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네요.

“신참일 땐 몰랐는데 중사가 되고 상사가 되니까 ‘군인’이란 사명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몸이 배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밖에 못한다’는 자부심이 깔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는 “이 얘기를 꼭 써달라”고 했다. 받아 적었다.

“참수리와 천안함 전사자들이 그날 그 바다에 왜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날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나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국민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시 설

지각 원 구성... 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형식적으로 정상화됐지만 내용 면에선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법안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냥 밀어붙였다. 여야 간 불협사나운 막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 과기정통위에서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어제 처리한 법안들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다.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다. 물론 시급한 사회적 요청이 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민생경제와는 별 상관없는 고도의 정략적 법안이란 점이다. 방송 관련 법안들은 공영방송에서 방송노조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고,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포석이란 게 정설이다. 게다가 '방송 3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대통령에게 다시 들이밀면 어찌자는 것인가. 법 시행 자체가

여야, 민생 관련 없는 정략 법안만 몰두 말고
여야 합의 가능 영역은 신속히 입법 협력을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연 국회가 이런 정치 놀음만 벌여도 될 정도로 우리 현실이 한가한가.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는 국민연금의 개혁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 보호 3법, 신혼부부에게 과격적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기본법개정안, 2030년부터 포화상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미래 경제의 키워드인 AI(인공지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본법,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국회에 산더미다. 이런 민생경제 현안들은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략적 법안들만 속도전을 벌인다면 총선 민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여당도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개혁안을 비롯한 일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의지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최근 여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인 것은 불가피한 속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생 입법의 처리 지연을 야기한 게 사실이다.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이제 여야 모두 민생법안의 속도전에 힘써야 할 때다. 정책의 영역에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적잖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공통분모를 찾아 딱딱한 삶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모호성부터 해소해야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어제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이 현행 법 체계를 훼손하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를 담았다.

상법(382조 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상법이 일반주주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당 합병과 쪼개기 상장,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한 경영 결정으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송 남발과 그에 따른 투자 및 기업가 정신 위축을 우려한다. 주주마다 투자 목적과 기대 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와 구조조정,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 잉여금 유보 등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주주 충실 의무' 위반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행동주의 펀드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소송이 빈번해지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 경쟁력도 훼손될 수 있다. 소송 우려에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상장사 152개를 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A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취소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경영계는 현행법으로 주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기업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후진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며 각종 문제를 양산한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를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 법제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 보호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경영 판단과 관련한 원칙과 이사의 면책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건 배임죄 폐지는 1대1 교환이 아닌 별도의 사안으로 논의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주주 충실 의무'라는 포괄적이며 모호한 명제로 기업의 불안을 키우는 건 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이 살고 제 역할을 할 때 주주 보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포의 의회 독재



이상언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예요? 왜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중략)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사과하세요."

임성근: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청래: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이후 사과 요구와 사과 발언 반복)

정청래: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임 전 사단장은 실제로 '10분간 퇴장'을 당했다. 지난 21일 국회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 입법 관련 청문회장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벌을 받았다. 일국의 안위를 책임졌던 사람이다. 그가 밖으로 쫓겨난 뒤 정 위원장과 같은 당 박지현 의원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두 사람이 웃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때 "답변에 따라 퇴거 명령을 하겠다. 주의하길 바란다.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라"고 말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의 '5공 청문회'부터 36년간 온갖 청문회를 봤는데, 증인을 복도에 세워놓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4선 민주당 최고위원의 위세가 대단했다.

지금 한국에서 타인을 밖에서 있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을, 부모가 자식을, 사장이 직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 인격 모독, 학대, 갑질이 된다. 세상

은 이렇게 변했는데, 국회 시계는 거꾸로 흘렀다. 공포스럽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다. '동료 시민'이기도 하다.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과 인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받드는 '무죄 추정'에도 어긋난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것이든 원하면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의석이 175석이고,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이다. 개헌, 탄핵,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재의결 말고는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게 없다. 정부가 반대하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법으로 만드는 등 행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법관을 옥죄는 법으로 사법 영역을 침범하려 든다. 기저를 애완경으로 규정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

국회 증인에게 모멸적 벌을 주고
행정·사법 영역 선 넘는 입법도
유권자, 민주당 행태 기억할 것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권세가 그 섬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히 무소불위다.

프랑스대혁명 직후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이끈 국민공회가 있었다. 일종의 의회였는데, 일당독재 체제였다. 공회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교과서에 '공포정치'라고 적혀 있는 시대다. 이 의회 독재는 3년 만에 무너졌다. 민심 이반이 있었고, 이를 등에 업은 반정이 성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국민공회 시대를 통해 인류는 군주 독재 못 지않게 의회 독재도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행태가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각뿐이다. 이렇게 의회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엮어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금도 이런데..." 라는 불안감이 자란다. 현명한 유권자는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의 기억에 하나하나 각인되고 있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원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차 인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매난테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June 26,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샌들 신다가 발뒤꿈치 찌릿, 방치 댄 무릎·허리 올라온다

직장인 박모 씨는 언제부터인가 아침이 두려워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서다. 발뒤꿈치의 찌릿한 통증은 나아지지가 않다가도 재발을 반복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박씨.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족저근막염이었다. 발 건강을 해친 주원인은 뜻밖에도 박씨가 매일 즐겨 신던 샌들이었다.

족저근막염은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 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져 생긴 염증이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마라톤, 오래 서 있기 등을 하면 발생할 수 있다.

불편한 신발 착용도 발병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밑창이 얇고 딱딱한 플랫폼 슈즈, 굽 높음 하이힐 등이 여기 해당한다. 여름철에 즐겨 신는 굽 낮은 샌들과 슬리퍼, 무거운 레인부츠(장화)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레인부츠는 발목 또는 종아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크기가 큰 데다 미끄럼 방지용 깔창 등이 더해져 무게가 상당하다. 굽까지 높다 보니 장시간 신고 다닐 경우 발바닥에 큰 압력을 가해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오목발(발바닥의 아치가 높아 발등이 정상보다 높고 올라온 발의 형태) 혹은 평발인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외상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상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 낮아져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대개 서서히 나타



근육 감싸는 섬유막 미세손상 염증
유사 질환 많아 정확한 진료 중요
치료 제때 못하면 고관절 등 영향
뒤꿈치 패드·맞춤형 깔창 등 도움

난다. 시작은 발뒤꿈치 안쪽의 통증이다. 이후 발바닥 안쪽 경계를 따라 중앙으로 확대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욱 교수는 “특히 기상 직후 처음 몇 발자국을 걸을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쉬는 동안 수축한 족저근막이 발을 디디면서 갑자기 늘어난 결과다. 동일한 이유로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있었다 일어나 걸음을 땀 때도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수 있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하고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곤 한다.

여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도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진다. 보행에 영향을 줘 무릎·고관절·허리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을 찾아 진료를 받고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족저근막염을 다른 족부 질환으로 혼동해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잖다. 대표적인 게 시간신경증, 종골 피로 골절이다. 이들 모두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지만, 위치와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는 “시간신경증일 때는 주로 발바닥 앞쪽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지수기자

▶ 2면 '발뒤꿈치'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초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초 앞 7700 건물 6층**

양치해도 여전한 입 냄새... 위·간·신장 건강 체크해보세요

구취 바로 알기 우리 인체에서 나는 온갖 안 좋은 냄새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그중에서도 입 냄새는 대화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없애려 더 열심히 양치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이를 닦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입 냄새의 원인은 다양하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정훈 기자

구강 문제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원인이다. 우선 입안, 치아 사이에 남아 있는 음식 찌꺼기가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입 냄새가 생기고 더욱 심해진다. 즉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들에 의해 입 냄새가 일차적으로 생기게 된다. 또한 구강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상태가 지속하면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이 번식하게 된다. 즉 이런 박테리아들은 불쾌한 가스를 배출하고 이러한 가스로 인해 입 냄새가 발생한다.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다면 입 냄새는 더욱 심해진다. 구강 내 감염, 당뇨,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고름, 혈액 등으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생길 수도 있다. 치과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안이 건조하면 냄새가 더 악화하는 만큼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

새로 느껴질 수 있다. 즉 트림했을 때의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질환이 확인됐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4~6개월 정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눕거나, 배가 불리는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초콜릿·녹차·커피 등은 식도괄약근을 약화하므로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비동염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부비동염은 코 옆에 있는 뿔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우선 부비동염에 걸리면 코가 막혀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데 건조한 입안 자체가 입 냄새의 원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부비동염으로 인해 생긴 끈적끈적한 황록색의 비강 분비물이 입 냄새의 주원인이다. 이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생기면서 입을 통해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된다. 부비동염의 경우 우선 약물치료를 하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전신마취 수술로 3박4일은 입원해야 한다. 그리고 부비동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감기나 비염 치료를 제때 해줘야 한다.

편도결석 편도결석은 만성 편도염이 있는 경우 생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내과적 문제도 입 냄새의 주범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액이 역류해 식도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위와 식도 사이에 있으면서 위 속 음식물이나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식도괄약근이 느슨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장관에서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형성된 가스가 역류해 구강을 통해 입 냄새



“충치·치주질환 상태 악화시켜 부비동염·편도결석도 주요 원인물 자주 마시면 구취 완화 도움”

“간·신장 등의 이상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 기관이다. 몸에 이롭지 않은 물질을 분해하거나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냄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날숨에서 역하거나 쿼퀴한 냄새가 난다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일 수 있다. 간 질환자의 입 냄새를 두고 ‘간성구취’ ‘간성악취’라는 말이 있다.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노폐물이 심한 입 냄새로 드러나는 것이다. 곰팡이 냄새나 계란 썩는 냄새,

가 구취다. 약물치료가 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권장된다. 편도를 제거하는 ‘편도 적출술’이다. 매년 3회 이상 편도염을 앓거나 편도염 치료에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에 고려한다.

“시큼한 냄새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장(콩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폐를 통해 숨으로 올라오게 된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면 입에서 오줌 지린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배출하지 못한 몸속 암모니아가 날숨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입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로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숨을 쉴 때 달콤한 냄새나 아세트 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원인 모를 입 냄새가 지속한다면 먼저 내 몸에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도움말: 변수환 한림대성심병원 치과 교수, 정주현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1면 ‘발뒤꿈치’에서 이어집니다

더 자세한는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또는 셋째와 넷째 발가락 사이에 통증이 발생한다. 정 교수는 “발바닥 문제가 아닌 당뇨병, 통풍, 혈관 이상, 척추 질환 등이 통증의 원인일 때도 많아 진단 시 질환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찰과 문진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정밀 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족저근막염이 오래된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에서 족저근막이 정상보다 두

꺼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되면 보존적 치료부터 시행한다. 환자의 90% 이상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중 하나가 생활습관 교정이다.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는 행동을 삼가는 방법으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을 피하고 최근 급속하게 몸무게가 늘었다면 체중 또한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을 권한다. 하이힐이나 플랫폼슈즈처럼 불편한 신발 착용도 삼가도록 한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신발을 바꿔 신는 일도 중요하

다. 김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보통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한다”며 “이런 구두를 계속 착용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구두 뒷굽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신발 속에 부드러운 뒤꿈치 패드를 넣거나 발의 아치가 높을 때는 맞춤형 깔창을 끼워 하중을 분산해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래된 구두 뒷굽 교체만 해도 호전
구준한 스트레칭은 생활습관 교정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발등 쪽으로 서서히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벽을 마주 보고 선 다음 통증이 있는 쪽 다리를 뒤로 뻗고 양손으로 벽을 밀면서 10여 초간 유지하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이다. 족욕이나 마사지 등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체외충격과 치료(ESWT)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주사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로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해 염증 조직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 기능 개선을 이끈다. 수술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한다. 수술을 통해서도 족저근막을 부분적으로 절개해 늘려 주거나 병소 부위를 일부 절제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윤한국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대개 6개월 이상, 비교적 천천히 회복되므로 치료에 있어 인내심이 요구된다”며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족저근막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자외선 차단제 피부에 맞춰 쓰고, 장 볼 때 생선은 마지막에

여름철 똑똑한 건강관리법

여름은 겨울 못지않게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계절이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덥고 습한 날씨면 기승을 부리는 균까지 더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에 알아둬야 할 생활 수칙은 뭐가 있을까.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눠 짚어 봤다. 하지수 기자

자외선 차단제 처음 쓴다면 소량만 '쓱'

자외선 노출은 뼈 성장에 관여하는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면 피부와 눈 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바른다.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은 자외선A(UVA) 차단 등급인 PA, 자외선B(UVB) 차단지수인 SPF로 구분하는데 PA의 +가 많고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 단, 그만큼 자외선 차단 성분이 많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어린이에게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물놀이를 한다면 물에 쉽게 씻겨 나가지 않는 내수성, 지속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를 눈여겨보라.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지속 내수성은 2시간 동안 입수와 자연 건조를 반복해도 자외선 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된다.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외선은 눈 안쪽의 수정체·망막까지 도달해 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여름철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선글라스 착용. 이때 렌즈 색이 짙다고 무조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건 아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김용찬 교수는 "렌즈의 색상 농도는 75~80%로 사람 눈이 들여다보이는 수준이 좋다"며 "여기에 UVB는 99%, UVA는 50% 이상 차단하는 제품을 권한다"고 했다.

식중독 장 볼 땐 상은 보관 제품부터 균이 번식하고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엔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최근 5년(2019~2023)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인 6~8월 평균 환자 수는 2061명으로, 1년간 발생 환자(5151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식중독에 걸리면 복통·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은 개인위생 관리다. 조리 전과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장을 볼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되도록 1시간 이내 장을 보고 ▶ 상온 보관 제품 ▶ 과일·채소류 ▶ 냉장·냉동 제품 ▶ 육류 ▶ 어패류 순으로 식재료를 사길 권한다. 예컨대 라면이나 쌀을 먼저 사고 양파, 우유, 닭고기, 생선 등의 순으로 구입하는 식이다. 구매한 식재료는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마트에서 집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담아 가는 것도 좋다.

안전한 식품 보관법도 실천한다. 채소는 물기를 제거하고 씻은 채소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 밀봉해 냉장 보관한다. 어류는 내장을 제거한 후, 흐르는 물로 씻어 물기를 없앤 다음 다른 식품과 닿지 않게 분리해 냉장·냉동 보관한다. 칼과 도마는 채소·육류·어류용 등 용도별로 구분해 쓴다.

무더위 카페인 다량 함유한 음료 피

하기 울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주의할 질환이 바로 온열 질환이다. 오랜 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을 야기한다.

온열 질환의 종류는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 다양하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이다.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신경이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손상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주요 증상은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다. 주변에 의식 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 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체로 몸을 식혀준다.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 단,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마시면 부종,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한다.

옷차림도 중요하다.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 양산, 쿨토시 등을 사용하면 좋다.

벌레 벌침 뺄 때는 손가락 사용 금물

여름에는 야외 활동 중 벌레나 뱀 물림 사고도 잘 일어난다. 벌레에 물리거나 쏘이면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호흡곤란, 심한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다.

벌에 쏘였다면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빨간게 부어오른 부위에서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은 다음,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긁어내듯 살살 밀어내면 된다. 급한 마음에 손가락이나 주변에 보이는 핀셋·집게 등을 사용하는 일은 피한다. 침의 끝부분을 집다 오히려 벌침에 남은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침을 제거하고 나서는 상처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완화한다.

뱀에 물렸다면 독사 여부부터 확인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는 "물린 부위에 2개의 이빨 자국이 있고 피부 변색, 부종, 수포 등이 나타나면 독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는 물린 부위 위쪽을

끈이나 수건으로 느슨하게 묶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의료기관으로 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림 사고 예방법도 익혀두면 유용하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의 옷과 바지를 입고 양말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되도록 밝은색 옷을 입고 풀밭에 눕는 일은 삼간다.

곰팡이 피부 얼룩덜룩해지면 어루러기 의심

무좀·어루러기 등 곰팡이로 인한 피부 질환도 여름철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 사상균으로 인해 야기된다. 여러 부위에 생기지만 발 무좀이 흔한 편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질이 두꺼워져 긁을 때 가루가 떨어지는가 하면 진물, 악취가 나기도 한다.

발 무좀은 주로 다른 환자에서 옮겨져 나온 피부 껍질, 발톱 부스러기 등을 통해 감염된다. 발수건이나 실내화 등을 통해서도 옮는다.

따라서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공용 물품 사용은 자제한다.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김희주 교수는 "곰팡이는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땀이 차고 더운 발 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통풍이 잘되는 신발 여러 개를 번갈아 신는 것도 무좀 예방에 도움 된다"고 했다. 또 하루 한 번 이상 발을 깨끗하게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말려 건조하게 유지한다. 치료 후에도 신발에 남은 곰팡이에 의해 무좀이 재발할 수 있으니 오래된 신발, 양말은 버리거나 항진균제 분말을 이용해 세척 후 이용한다.

어루러기는 곰팡이의 일종인 말라세지아가 피부 각질층에 과다 증식해 나타난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면 발생하며 미관상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목과 가슴 등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겨서다.

색상은 회백색·갈색·붉은색 등 다양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씻고 구석구석 잘 닦아 말려줘야 한다.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 옷을 입어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해도 좋다.



“사타구니 부위 튀어나왔다면 의심 목 디스크 예방엔 바른 자세 중요 누울 때 무릎 밑 쿠션 받치면 편해”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역의료 허리 역할 담당, 내년 초 150병상 종합병원으로 도약

병원 탐방 사랑플러스병원 중소병원은 국내 의료계의 '허리'로 불린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를 포함해 중증 환자 치료까지 담당하는 곳이 바로 중소병원이다. 2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뿌리내려 가족 주치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틈에서 중소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중소병원은 그동안 하나둘 자취를 감춰왔다. 이런 가운데 사랑플러스병원은 국내 대표 중소병원으로서 꿋꿋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회균 병원장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숙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 시설을 갖춘 중소병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병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지역의료가 살고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경 기자

중소병원의 역할론이 커졌다. 최근 의료 대란의 여파로 지역 중소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사랑플러스병원도 그중 하나다. 관절·척추 중심 병원으로 잘 알려졌지만 병상 규모와 진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 때도 의료 공백을 메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로 개원 21주년을 맞은 사랑플러스병원은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현재 95병상인 병상 수를 내년 초까지 150병상으로 늘려 종합병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신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 전문 진료센터도 확대한다. 국 병원장은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신관을 리모델링하면서 1인 입원실과 중환자실, 검사실, 응급진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전문 분야였던 관절·척추 치료와 함께 2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해외서도 배우러
병원 운영의 성패는 '실력'과 '원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이유로 유명세를 얻어도 공인 실력과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사랑플러스병원은 이 두 가지 성공 요소로 무장한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이다. 특히 국 병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 분야의 대가로 꼽힌다. 로봇 수술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2003년부터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았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발전을 이끈 터줏대감인 셈이다. 국 병원장은 "2017년 로봇 인공관절 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돼 국내외 의료진에게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진 시스템도 눈에 띈다. 사랑플러스병원은 관절·척추는 물론 내과와 뇌신경, 재활, 검진, 국



관절·척추 외 내과·뇌신경·재활 등 8개 진료과와 7개 전문센터 운영
세부 전문성 토대로 맞춤형 진료

제 진료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현재 16명의 전문 의료진을 필두로 8개의 진료과와 7개 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각 세부 전문성을 토대로 환자 상태에 맞는 특화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모여 다학제 회의에 참여한다. 중소병원에선 보기 드문 모습이다. 국 병원장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의료진 간 활발한 협진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대학병원에서 퇴원·전원한 암 환자도 모여 케어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과 진료를 확대한 결과, 진료 환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까진 관절·척추 질환 환자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내과 진료 환자가 전체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랑플러스병원의 진료 원칙은 명확하다. 어떤 상황이라도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가 까다로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방 끝에 내몰리는 환자가 적잖다. 고령이거나 재수술 환자라면 특히 그렇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통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사랑플러스병원은 환자를 가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마지막 치료 희망을 안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랑플러스병원은 2019년 107세 최고령 환자의 전측 피부 이식술과 93세 환자의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 병원장은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사랑플러스병원 이 그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면서 지역 사회의 자량이 되는 병원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센터 연계 강화해 전신 회복 이끌
사랑플러스병원의 치료 프로토콜은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치료 이후 재활까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가 수술 후에도 통증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여도 예외는 없다. 병원을 자주 오갈 수 없는 환자에는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전수한다. 국 병원장은 "전문센

터별로 연계를 강화하면서 환자의 전신 회복을 이끌고 있다"며 "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의료비, 내원 횟수 등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 철학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이어진다. 사랑플러스병원은 의료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4년 의료 NGO 단체를 설립했다. 사단법인 '더 러브 브릿지'의 시작이다. 병원은 이 단체를 통해 매년 정기적인 의료 봉사를 이어오며 의료 소외 지역민에게 인술을 베풀고 있다. 해외 진료 봉사 및 의약품 지원 사업, 보건소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 병원장은 의료구호 활동에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제3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받기도 했다. 국 병원장은 "수익성만 따졌다면 꾸준한 의료 봉사를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봉사를 통해 의료 소외 계층을 돌보면서 희망을 전하는 것이 의료인의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국회균 사랑플러스병원 병원장

“믿고 찾아온 환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초심 잃지 않을 것”c

의료인의 이름 뒤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책임감'과 '사명감'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낭만 닥터가 되길 요구할 수 없다. 이들 요건은 자발적인 헌신과 태도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균 사랑플러스병원 병원장의 진료 발자취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점철된다. 30여 년 넘게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국 병원장에게 남다른 진료 철학을 물었다.
-사랑플러스병원의 역할은 뭔가?
"지역 사회와 의료계에 보탬이 되는 2차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다. 1차 병원과 3차 병원 사이에서 2차 의료를 맡아 줄 아성급 병원들이 점차 줄고 있다. 강동구와 송파구만 해도 치료시설을 갖춘 중소병원은 1~2개에 그친다. 사랑플

러스병원은 환자들이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멀리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향후 병원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다.
"일단 내년 초까지 병상 수를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환자들에게 질 높

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병원으로서 대학병원과 협력해 환자의 입원과 재활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장비를 마련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효율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응급진료와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의 다각화를 이를 예정이다."

-재원 확보와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면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환자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큰 뜻이 모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선한 마음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의료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영경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er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한방 칼럼

최근 최종당화산물(AGE;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이란 용어가 가끔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포 조직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분(포도당)과 엉겨 붙는 상태를 최종당화산물(AGE) 혹은 당독소라고 한다.

당분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엉겨붙으면 유연성과 활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적혈구의 단백질에 혈액 속의 당분이 엉겨붙으면 어릴 때 보았던 누런색 설당을 녹여 열에 눌린 빵기 달고나처럼 딱딱하게 굳는다.

적혈구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야 좁은 모세혈관도 잘 통과하게 되는데,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엉겨붙어 AGE가 되면, 스펀지같은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적혈구의 산소운반 능력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생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최종당화산물(AGE)이 우리 인체의 각 조직과 장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관벽에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된 AGE가 옮겨 붙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고,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된 AGE가 엉겨붙으면 주름을 남긴다.

뇌세포에 지방,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된 AGE가 엉겨붙으면 베타아밀로이드

치매 예방 (5)



권진열
헤민한의원 원장

를 남겨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고혈당증의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치매로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뇌세포로 가는 구석구석의 가는 모세혈관의 파

괴도 일어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 모세혈관이 파괴된다는 것은 마치 택배가 다니는 골목길이 막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에 비유된다.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뇌기능은 떨어지고, 뇌의 부피도 줄어 호두처럼 쪼그라든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글루텐이 많은 빵 과자 사탕 국수 과일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천일염을 입에 몇알 집어넣어 물고 있다가, 다 녹으면 또 몇알 입에 넣기를 낮게 계속 반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한 과자 과일 등이 싫어지는 상태가 온다.

한번 실천해 보자. 의외로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더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또 음식을 3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하면 내내력과 스트레스 감소효과도 가져온다. 또 튀긴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가령 삶은 감자의 AGE값은 17인데, 감자튀김 100g의 AGE 값은 1,522로 당독소가 89배로 증가된다. 삶은 닭 90g의 AGE값이 1,011인데, 구운 닭은 5,245로 5배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서 제3의 당뇨로 불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자.

▷ 문의 : 301-922-9239

건강 칼럼

빈뇨증상에 관하여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빈뇨, 야간 빈뇨로 인해서 정상적인 밤잠을 유지할 수 없거나, 주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급성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하도록 한다. 따라서 빈뇨증상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한 70대 초반의 남성인 김모씨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돼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4번 이상 가고 낮에도 의욕 없이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다. 골프를 칠 때도 소변을 참지 못해서 라운딩 중에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소변을 볼 때는 소변이 잘 나왔지만 양은 많지가 않았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만성 불편증과 함께 우울증까지 느끼게 돼 병원을 찾았다. 정밀검사 후에 김씨의 빈뇨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여성인 박모씨는 최근 3일 동안 심한 빈뇨와 함께 소변볼 때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과거에도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피곤할 때는 방광염을 앓았던 박씨는 이번에도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 소변검사상 현미경하에 혈뇨가 보였고 백혈구와 세균이 수적으로 많았다.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은 박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를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남성은 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느리게 나오고, 방광에 잔뇨가 남아 자주 화장실을 찾는다.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바지를 적시는 경우도 흔히 본다. 전립선은 수도꼭지와 같아서



이명정 원장
LA 이명정내과

나이가 들게 되면 비대하게 돼 요관을 막는다.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질환은 방광이 과민할 때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가지만 소변량은 많지가 않다.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이 300~500mL 찼을 때 방광 근육이 수축해 반응한다. 반면 과민성방광증상에서는 방광에 소변이 반만 차도 소변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 자주 마렵고, 한 번 마려우면 참기 힘들다.

과민성방광과 증상이 유사한 질환은 방광염이다. 방광염에 걸려도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이 나타난다. 두 질환은 '염증'으로 구분해야 한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원인이다. 염증이 없을 때는 과민성방광으로 진단된다. 세균성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로 쉽게 되지만 10~20% 정도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2~3일 내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재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바꿔야 한다.

소변검사가 정상이면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과민성방광은 약물치료로 잘 조절된다. 최근에는 효과적이면서 변비나 입마름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은 약물도 쓸 수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드물게 방광암에서도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소변검사서 지속적인 혈뇨가 나타나고 빈뇨가 약물치료로 호전이 없으면 경우 방광경 검사를 하도록 한다.

정신 건강

반복되는 분노 폭발

최근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증간소음으로 시작한 이웃 간 갈등이 폭력, 살인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 같은 분노조절 실패가 보복운전, 증오범죄, 총기 난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븐 연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도 운전 중 난폭 행동, 로드 레이지(road rage)가 발단돼 남녀 주인공이 서로 복수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적,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흔히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이는 정신의학적으로 진단명은 아니다. 충동조절 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라는 용어도 자주 쓰는데 이 역시 공식 진단명은 아니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상위 유형인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ive, Control and Conduct Dysphoria)의 다른 말이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는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폭력이 동반될 수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 행동 장애로 사소한 일, 일의 중한 정도에 상관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폭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언어적 공격성(비난, 언쟁, 폭언, 분노발작), 재산, 타인, 동물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성이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발생하면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체적 공격성이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도 해당한다.



문상웅
심리상담가(LCSW)
이웃케어클리닉

또 ▶재산 피해, 타인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공격성, 즉 폭행을 포함한 폭발적 행동이 1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진단하는 근거가 된다. ▶행동폭발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동안, 공격성의 정도는 사회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촉발, 유발되는 일반적인 반응을 심하게 넘어서며 ▶이런 반복적 행동폭발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며 돈, 권력 등의 유희적인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뚜렷한 목적 없이 일어나야 한다.

이외 ▶이러한 공격성으로 인해서 현저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직업,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법적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다.

단,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매우 드문 장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공격성이 다른 어떤 정신질환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된다. 또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행동의 패턴, 자란 환경, 정신질환 히스토리과 가족력, 알코올, 마약, 약 복용 기록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단순히 나타나는 행동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는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 그 요인을 제거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헤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3%	0.9%
매우물음	양호	노화사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뼈

엄지

엄드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다큐 영화 '이소룡-들'
 '용쟁호투' 등 4편 남기고 돌연사 뒤
 이소룡 닮은꼴 아류작 수백편 탄생
 '이소룡 키드' 자처한 이경규가 수입
 "그에게 미처 강남 아파트값 날랐다"

"아보!" 하는 괴성과 함께 쌍절곤, 노란색 점프 슈트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1970년대 쿵푸 열풍을 일으킨 절권도의 창시자 리샤오룽(李小龍·이소룡, 영어 이름 브루스리).

미국에서 TV 시리즈 '그린 호넷' 카토 역할로 얼굴을 알린 뒤 홍콩에 돌아온 그는 '당산대항'(1971), '정무문'(1972), '맹룡과강'(1972), '용쟁호투'(1973)까지 생전 단 4편의 쿵푸 영화를 남겼다.

인기 절정이던 1973년 '용쟁호투'의 개봉을 앞두고 그가 뇌부종으로 33세에 돌연 사망하자, 홍콩 영화계에선 닮은꼴 찾기가 시작됐다. 버마의 쿵푸 도장 사범 출신 여소룡(브루스레)부터 대만계 체조 선수 겸 체육 교사였던 허종다오(브루스라이), 훗날 주성치의 '쿵푸허슬'(2004)에도 출연한 홍콩 스트리트 파이터 출신의 양소룡(브루스량) 등이 다. 한국에서도 배우 문경석이 '거룡'(드래곤리)이란 예명으로 가세했다.

아류가 난무하며 영어 이름 '브루스'와 영단어 '익스플로이테이션'(Exploitation, 유행을 타고 아류작이 쏟아지는 현상)을 합성한 '브루스플로이테이션'이란 신종 장르까지 생겼다.

지난 19일 개봉한 '이소룡-들'은 이소룡의 아류 배우들이 액션영화계를 누볐던 당시를, 감독과 배우 등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충격적인 진실'(2000) 등 20여년 간 10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데이비드 그레고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다들 차기 이소룡을 원했다. 해외 배급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다들 죽은 이소룡 영화만 찾았다."(홍콩 감독 하지강)

"누군가 내게 '이소룡과 닮았다'며 큰 선글라스를 주고 머리도 바가지 스타일로 바꾸자고 했



**"아보!" 그는 떠났지만
 이소룡 장르는 남았다**

다큐멘터리 '이소룡-들'은 1970년대 쿵푸 스타 이소룡의 돌연사 후 전세계적으로 아류작이 쏟아진 현상을 재조명했다. [사진 에이디지컴퍼니]

다.(배우 여소룡)

글로벌 스타가 된 청룡(成龍·성룡)도 무명 시절 '정무문' '용쟁호투'의 스탠트 단역을 거쳐, '신(新)정무문'(1976)에서 '차기 이소룡'으로 소개되며 주연 데뷔했다. 중화권 무술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관객들이 동양인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한 점도 아류작 양산을 부추킨 이유로 꼽힌다.

제작진은 2017년부터 7개국에서 모방 배우들

을 비롯해 영화감독·프로듀서·배급 관계자 30인 이상을 인터뷰했다.

"어릴 때 비디오 가게에서 이런 영화들의 비디오테이프 커버를 많이 봤다"는 그레고리 감독은 "그 수백편의 영화를 단순히 '이소룡 아류작'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브루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해 그분들(모방 배우)의 심경이 북



잡했다는 '잡'이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이소룡을 대단히 존경했다. 그들의 의도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고인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다. 이소룡은 세상에 없지만, 힘은 여전히 대단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마릴린 먼로나 제임스 딘도 이소룡만큼 강력한 아이콘이지만, 그들을 닮은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진 않았다. '브루스플로이테이션' 뒤에 있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산업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소룡에 관한 주변 증언도 흥미롭다. 194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홍콩 배우로 각인된 그는 70년대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 난세의 영웅으로 추앙 받았다. 그는 자기 수련에도 엄격했다. 그가 사망 전까지 강도 높은 전기충격 훈련을 거듭했다는 인터뷰도 나온다. 그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이 두통약 과민반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큐를 국내 수입한 이도 이소룡 덕후인 이경규다. '이소룡 키드, 이자룡(李子龍)'을 자처해 온 그는 이소룡 사망 50주기였던 지난해 부친국제 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이다큐를 처음 접했다.

지난 10일 시사회 무대인사에서 그는 "많은 분과 이 영화를 보며 추억에 잠길 수 있고, 이소룡을 잘 몰랐던 세대는 왜 이소룡이 20세기 최고의 아이콘이었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수입 계기를 밝혔다.

이경규가 MBC 예능 '몰래카메라'로 인기 절정이던 1992년, 돌연 쿵푸 영화 '복수혈전'을 제작한 것도 이소룡의 영향 때문이다. 그가 기획·각본·주연·연출까지 맡은 '복수혈전'은 흥행 참패였는데, 그는 나중에 "당시 강남 집값 수준이었던 사비 5억원을 날리고 야간업소로 밤일을 갔다"고 방송에서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그는 다큐 개봉을 계기로 "나는 여전히 이소룡에 미처 있다. 이소룡은 내 영혼의 한 부분"이라고 영화사를 통해 밝혔다. **나원정 기자**

철순의 판소리 명창 김형욱은 매일 새벽 3시 30분 기상해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한다. 판소리에 본격 입문한 2004년부터 20년간 이어온 '루틴'이다.

지난달 말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자택에서 만난 그는 자신을 '늦깎이 소리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원래 목사였다. 고교 3학년이던 1972년,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을 때만 해도 소리꾼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학비를 벌어가며 어렵게 신학대(1975~82)와 신학대학원(1984~91)을 졸업한 뒤 자연스럽게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회 CCM 밴드를 결성해 드림을 치는 등 서양 음악에 빠져던 그가 판소리

목사하다가 40대에 소리꾼으로... "알고보니 운명이었다"

철순의 판소리 명창 김형욱

에 이끌리게 된 건 운명 같은 일이었다. 2001년 2월의 어느 날이었다. "봉천동 밴드 연습실 근처에 판소리 학원이 있길래 문을 열어보니 한 할아버지가 아이 둘을 놓고 소리를 가르치더

김형욱은 2017년 강산제 조상현류 심청가 이수자가 됐다. [사진 김형욱]

라. 조금 들어보고 가려고 하니, 할아버지가 '수강료 안 받을 테니 배워보 기만 하라'며 붙잡으셨다. 이 할아버지가 조상현 선생님의 제자인 방기준 명창이었다"고 말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김형욱은 1970~80년대 최고의 남성명창으로 불렸던 조상현 명창에게 발탁돼 2004년부터 심청가와 춘향가를 배웠다. 이듬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개최한 '귀명창대회'에서 우승한 뒤 판소리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신

의 큰할아버지가 명창 김종길이며, 부친 또한 명창 임방울과 함께 수학했던 소리꾼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소리꾼 집안의 운명이 돌고 돌아 결국엔 제자리로 왔다"고 회상했다.

김형욱과 27년 인연의 조성철 PGM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목사를 하면서도 끼를 버리지 못해 서양 음악을 하던 양반이 갑자기 국악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직접 보니 이미 소리에 깊게 빠져있었다"고 회고했다. 조 대표는 김형욱의 매니저 역할은 물론, 공연의 주 관사로도 함께한다.

그의 집은 판소리를 연구하기 위해 읽은 책들로 가득했다. 판소리 다섯 마당에 녹아 있는 삼강오륜을 이해하기 위해 논어를 공부했고, '적벽가'(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를 잘 부르기 위해 삼국지를 여러 번 정독했다고 한다. 그는 "어전광대의 전통을 잇는 유일한 소리를 허투루 배울 순 없다"고 했다.

그는 "판소리는 할수록 어렵고 깊다"면서 "심청가만 20년 하면서 (판소리를) 조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악을 가요에 접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악은 국악답게, 가요는 가요답게 부를 때 가장 멋있다"며 "앞으로도 소리꾼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지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친환경도 좋지만... 선수촌 방에 선풍기만 달랑

파리올림픽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서 열린다. 유서 깊은 장소를 각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외적 환경 탓에 개막 전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대회'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물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다. 개최식은 역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을 벗어나 야외에서 개최한다.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센강에 160여 척의 배를 띄워 선수단 입장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파리 시 안팎의 유명 관광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한다. 에펠탑 앞에는 비치발리볼과 유도-레슬링을 위한 특설 경기장이 만들어진다. 지난 1900년 만국박람회를 개최한 역사적 건축물 그랑 팔레에선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린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5종 등 전통 종목을, 콩코르드 광장에선 브레이크,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등 신세대가 선호하는 종목을 치른다.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군사 박물관 앵발리드는 양궁 경기장으로 변신한다. 마라톤은 파리시정인 오펜드빌에서 출발해 그랑 팔레와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앵발리드를 거치는 '문화재급 코스'에서 열린다.

하지만 조직위의 친환경 방침이 무

날짜	종목	선수명	비고
7월27일	수영	김우민(남자 자유형 400m)	우상혁
	펜싱	오상욱(남자 사브르 개인전)	
	펜싱	송세라(여자 에페 개인전)	
7월28일	양궁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여자 단체전)	
	사격	김예지(여자 10m 공기권총)	
7월29일	유도	허미미(여자 57kg급)	
	양궁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남자 단체전)	
7월30일	수영	황선우(남자 자유형 200m)	
	수영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등(남자 계영 800m)	
7월31일	펜싱	오상욱,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남자 사브르 단체전)	전문태

조건 박수를 받는 건 아니다. 선수촌 객실에 에어컨을 얹고 선풍기만 비치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참가국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조직위는 "파리의 7~8월은 무덥지 않아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수들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 2019년 7월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2.4도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여름엔 무더위로 파리에서만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10km 오픈워터 수영, 철인 3종경기 등을 치르는 센강의 수질도 문제다. 센강은 수질 악화로 인해 1923년 이후 일반인의 입수가 금지된 상태지만, 대회 조직위는 예정대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가 14억 유로

열악한 시설 벌써부터 입방아
"기존시설·문화유산 최대한 활용" 센강에 배 160척 띄워 선수단 입장 수질 나쁜데 수영경기까지 계획 SNS선 '센강에 똥을 싸자' 조롱



선풍기와 골판지 침대만 덩그러니 놓인 파리올림픽 선수촌 객실 전경(왼쪽)과 수질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센강에서 수영을 공약한 마크롱 대통령 합성 사진. [AP=연합뉴스, X 캡처]



마크롱 대통령이 센강에 입수하려던 지난 23일에 맞춰 '센강에 똥을 싸자'는 캠페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마크롱의 입수 계획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약 2조원)를 들여 확충한 빗물 처리 시설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둔 현재까지도 기대한 만큼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나서서 "센강에서 직접 수영해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지만, 민심은 냉랭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센강에 입수하려던 지난 23일에 맞춰 '센강에 똥을 싸자'는 캠페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마크롱의 입수 계획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극성스러운 바가지 요금, 소매치기·강도 등 강력 범죄, 각종 테러 위험 등도 파리올림픽 성공 개최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변수다.

송지훈 기자

8년만에 올림픽 나서는 북한, 선수단 규모는?

레슬링 등 6개 종목 출전권 획득 선수 최소 14명 참가, 더 늘 수도 체조 안창욱·복싱 방철미 메달권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이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선수를 파견할지 관심거리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총 7개의 메달(금2·은3·동2)을 획득하며 종합 34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 여서 선수를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기



북한이 파리올림픽에서 6개 종목에 걸쳐 14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여자 기계체조의 안창욱(왼쪽)과 복싱 여자 54kg급 방철미는 메달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위해 불참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2021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올림픽 헌장 위반을 지적하면서 국가올림픽위원회

은 북한이 징계를 받은 이후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자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올림픽이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획득한 출전권은 19일 현재 6개 종목 14장이다. 레슬링에서 5장을 확보했고, 탁구 3장, 수영(다이빙)과 복싱 각각 2장, 체조와 육상 각 1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출전권을 배분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 선수단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체조가 첫 손에 꼽힌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기계체조 2관왕에

큰 안창욱이 올림픽 랭킹에서 최소 2위를 확보한 상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싱에서 여자 54kg급 금메달을 목에 건 방철미도 주목할 만한 선수다. 지난 2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미래-조진미 조도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남자 마라톤의 한일룡, 레슬링 여자 자유형 62kg급 문현경 등도 객관적인 기록에선 메달권과 거리가 있지만,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 한일룡과 문현경은 지난해 북한의 10대 최우수 선수에 뽑혔던 기대주다. 올림픽 무대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지훈 기자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블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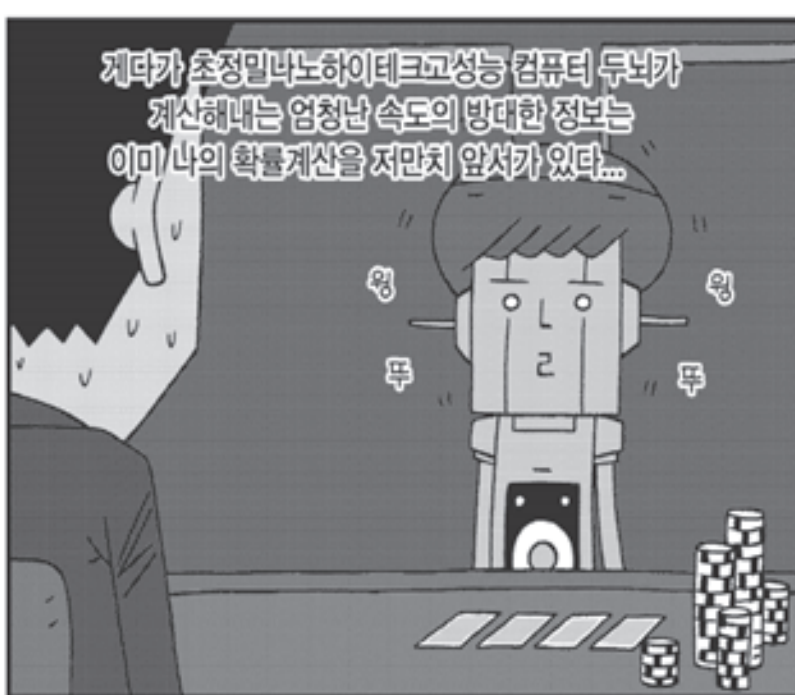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로봇**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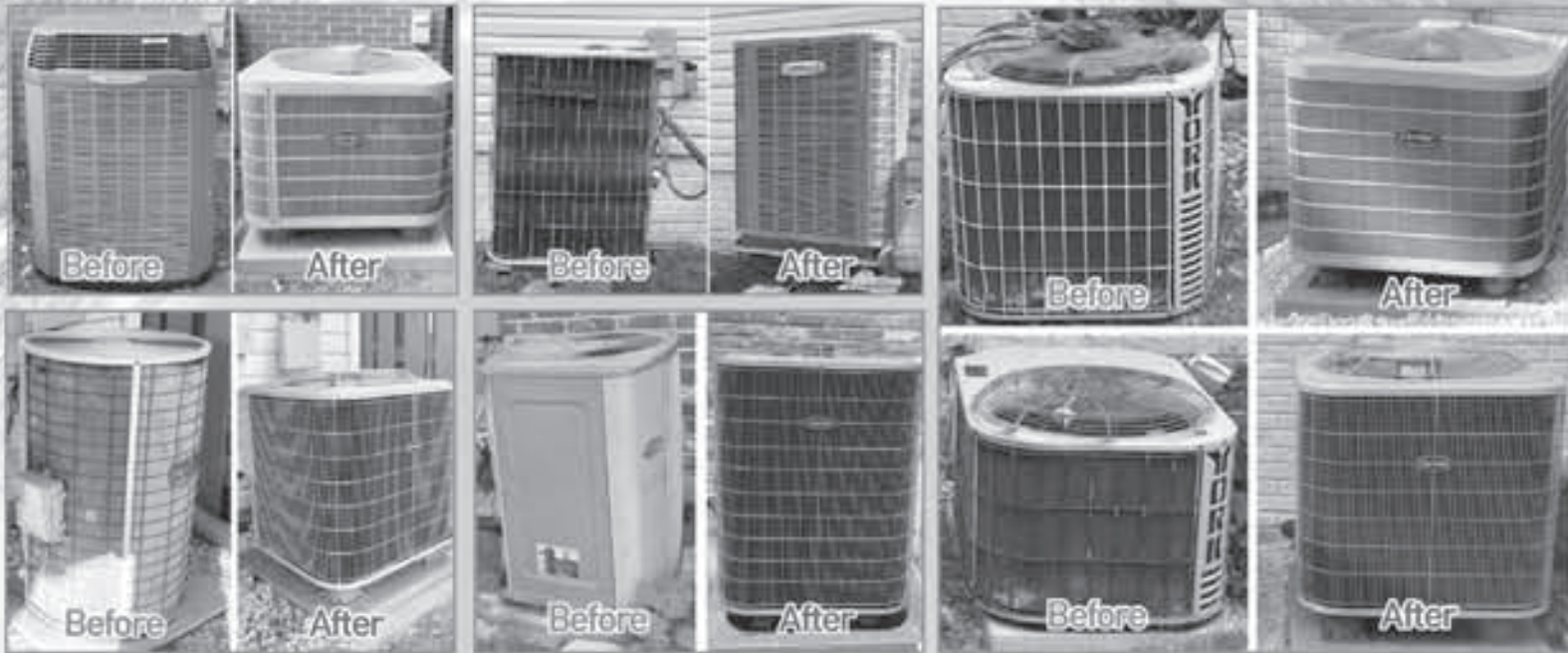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간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간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간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Graphic Designer: Design graphics to meet specific commercial or promotional needs, such as packaging, displays, or logos. Use common designing programs such as CorelDRAW, QuarkXPress, VCarve Pro, and photoshops & illustrators. 40 hours/week. Master in Design or Fine arts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HIZ Solution Inc dba HIZ Design & Print or HIZ Creative Design at 7535 Little River Tpk Suite 120C, Annandale, VA 22003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y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Bachelor in account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req'd. Send the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온라인 세일 및 웹사이트 관리자.
MD소재 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 및 온라인 세일 관리 도우실분. 재택근무. 파트타임 가능. 자기소개, 근무가능 시간 및 희망보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571-332-2101(문의)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된 분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성·코 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첸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첸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라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 지원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싱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급휴가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플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버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에서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y.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시어 구합니다.
443-864-009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출간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중앙일보**

엘리콧시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짜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인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터레이션>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컴퓨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컨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 (유포)
대답요하면 메세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
차기,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근교 단독주택 \$574,000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단독주택 \$526,000
방3, 화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55+ 시니어 주택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HOA (\$150)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 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 2, 화장실 2, 2층, Loft 애난데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 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아난데일 K마트뒤 싱글홈 방 하나, 주차석
703-965-2343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넌데일, 노바근처, 방 1, 화장실 1, 침대, 책상, 초고속 인터넷, 냉방고,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깨끗한 싱글홈. 즉시입주 가능.
703-772-7680(문자요망)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문자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 환영
443-983-1880 문자 주세요.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사용공간 1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 Coming Soon 애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롬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고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매입 / 현장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Seafood Carry Out 주매상: \$9,000 렌트: \$3,750 주 6일 MD Fort Washington 매매가: \$170,000 301-768-1240

우표, 동전, 오랫동안 수집했던 것 팔고자 합니다.
240-723-511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속속길 걸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넷,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가격으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 매매〉

무방식 역 이인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 을 정리합니다. 김치냉장고 담채, 컴퓨터, 옷장, 식탁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락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락,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서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트러블,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잔치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슈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에디션, 차고, 텍, 펜스 제너럴 컨트랙터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동/히팅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open-minded: 마음이 넓다, 편견없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Two friends are talking after class...)

(친구 둘이 수업 후 얘기한다...)

Sally: Charlie why don't you pay attention in class?
샬리: 찰리 넌 수업중 왜 주의를 떼고 다니는 거니?
Charlie: Because I can't catch 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찰리: 선생님 말씀을 못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Sally: You are the only one in class that doesn't.
샬리: 우리 반에서 못알아듣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Charlie: It's not my fault that she's so boring.
찰리: 선생님이 너무 지루한 게 내 잘못은 아니

잖아.
Sally: She isn't that bad. You're not open-minded when it comes to teachers.
샬리: 선생님이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니어서, 넌 선생님한테 마음을 닫고 보는 거야.
Charlie: Well when it comes to teachers you're suck-up.
찰리: 너로 말하자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알랑쇠야.
Sally: You're just jealous because you can't get A's

like me on the tests.
샬리: 넌 나처럼 시험에서 A를 못받으니까 샘내는 거야.
Charlie: I could if I wanted to.
찰리: 하기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어.
Sally: It's easy to say but not easy to do.
샬리: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잖아.
Charlie: I consider that a challenge. I'll show you that I can be a good student without sucking up.
찰리: 지금 그것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어. 내가 선

생님한테 알랑거리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기억할만한 표현

- ▶ catch on (to): 알아듣다 이해하다
"It took me a while but I caught on."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결국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 ▶ suck up: 아첨하다 알랑거리다
"Brad's always sucking up to his boss."
(브래드는 항상 사장에게 아첨하죠.)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병균, 세균 등 미생물을 볼 수 있지요 (4)많은 물감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 그냐는 쓰레기 ~를 뒤져 알아버린 반지를 찾아냈다 (5)못난 사람이 종직없이 담배는 모양.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으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8)딸의 남편 (9)옥같이 잘생긴 사내아이 (10)캐내어서 아직 말리지 않은 인삼 (12)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낸 여덟 글자 (15)성이 하늘(천)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음 (16)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 뛰어난게 아름다운 미인. 경포(19)등잔, 초파위에 불을 붙이는 부분 (20)약 46억 년 전에 생성되었으며, 태양의 세 번째 궤도를 돌며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다 (22)빗물에 의해서만 비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답) (23)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팥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 (24)사실을 바른대로 말함 (26)자연 재해 중에 가장 큰 재앙이죠 (27)음력 1월 15일.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을 깨물며 오곡밥을 먹는다

세로열쇠

(1)벼의 길쭉질만 벗겨 낸 쌀 (2)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지)을 흔들.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3)어른의 밥 (4)음력 정월 대보름날의 세시풍속. 이른 아침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내 더위 사 가게라고 말하죠 (6)조선 시대, 지방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남자 하인 (7)무엇을 기원하는 뜻으로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 (11)모든 빛깔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색깔 (13)자기 돌을 자기가 지은 집 안에 놓아 스스로 자기의 수를 줄이는 수 (14)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15)목적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 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17)일이 매우 더디어 잘 진척되지 않음 (18)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어 빼고 기다림. 애타게 기다림 (21)고기나 생선에 양념을 하여 구운 음식. 대표적인 인기 조리법은 최근 삼겹살 프랜차이즈 업체를 휩쓴 볶짚~이다 (22)타고난 직업이나 직분. 선생님께서는 교직을 ~으로 여기시고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신다 (25)연애에 실패함 (26)원에서 중심을 지나 그 둘레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스도쿠

8		3			5	4	6	
		4	6	9		8		2
			8		4		9	3
	8	5		3	7	1	4	
	2		5	6	1			
6	3	1						5
			3					
7					2	5		
			9					7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1	9	8	5	6	2	4	3
8	3	5	2	4	1	6	9	7
4	7	6	9	3	7	8	1	5
5	7	2	6	8	4	1	3	9
6	8	3	1	9	5	7	2	4
9	4	1	7	3	2	5	8	6
3	6	7	4	1	8	9	5	2
2	5	8	3	9	6	4	7	1
1	9	4	5	2	7	3	8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 EXP. DATE: / month year /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Hello K-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전문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미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 Up to 40%
헝트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율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상담 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JAWS Topokki**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종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청해김 BLUE OCEAN LAVAES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